

성도의 빛 12
1977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12
1977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랭스
제임스 에이 칼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감사하는 마음.....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
 내세의 고향, 영의 세계.....데일 시 모리슨..... 3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침.....스티븐 알과 샌드라 코우비..... 9
 “2000여 명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린 니메어.....12
 등불의 기적.....버너던 비티.....13
 매일을 성탄절 처럼.....16
 대관장단의 성탄절 추억.....18
 성탄절에 찾아온 손님.....어니스트 앤 에크로프.....22
 굶주림, 열망, 그리고 가르침.....데오 이 맥킨.....25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28
 지역 지도자 메시지.....서울 스테이크 이 호남.....30
 교회 및 지역 소식.....31
 1977년도 성도의 벗 색인.....35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49호, 제13권 제1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7년 12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감사하는 마음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성 탄절을 맞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동안 끊임없이 나를 도와 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이 없이 인자한 나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 여러분, 교회 축복사,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책임을 맡은 관리감독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선하고 관대함을 지니신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전 이달에 태어나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가를 말해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창건한 종교에 대해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한 말을 생각할 때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들은…… 천국과 그에 속한 영광에 관한 것은 물론 그들 상호간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진전한 토대 위에 설립되도록 하는 생활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 아무도 교회의 발전을 저지할 수 없지만, 그 발전은 무한대에 이를 것입니다. 과거에도 위대하고 훌륭한 운동이 일어나긴 했으나 성숙 단계에 이르기 전에 중단되고 말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물론이즘이 앞으로 삼사대까지 변경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력을 형성할 것은 결정적인 사실입니다.”(기이한 업적, 346페이지)

나는 또한 왕국의 발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대 다수인 2만 6천여 복음 선교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사로도 볼 때 유례없는 숫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나누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음은 물론 현재도 살아 계시고, 그의 교회와 왕국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을 맞아 알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왕국으로 개종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금식 헌금을 기꺼이 바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구유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월 방마져 없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은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방법대로 그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 남녀가 신전에서 영원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신전 결혼의 숫자도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교리와 메시지를 듣기 위해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보고,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결의와 목표를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 봄으로써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다 결의에 찬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세어 보고,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에게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거부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활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점점 그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영생에 대한 목적만 아니라 이 세상 생활의 건전한 길까지도 제공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하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불사불멸과 영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듯 의로운 삶도 그들의 눈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뒀에는 기쁨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신이 인도하는 생활을 영위하십시오.

또한 위대성은 삶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위대성은 우리가 하는 일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시간과 자신과 재능을 먼 훗날까지 영향을 미칠 일을 위해 바칩시다.

세상의 형세나 주변 상황이 때로는 위태롭게 돌아가는 때이라도 우리는 성탄절만 아니라 언제나 기운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기운을 잃지 않도록 자주 권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61 : 36)

“그러므로 기운을 내어 두려워 말라.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간증하리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간증하리라.” (교리와 성약 68 : 6)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봄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성탄절을 맞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입니다. 봄은 새 생명을 주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교회 회원은 이 성탄절을 맞아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지만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업적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오른 것에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이 그의 사명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수행되었으

며 결코 좌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감람산에서의 승천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처럼 분명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구유에서의 첫번째 오심과는 대조적으로 놀라운 권세와 위엄을 지니시고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크신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4 : 7)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큰 은사를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구세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압니다. 그가 걸은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한 번에 조금씩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사렛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 마리아, 예수를 따라 애굽에도 가실 수 있습니다. 변형의 산에도 갔다 올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도, 흑해, 베다니, 요단강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행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원하십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한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산과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니파이 백성에게 말했다듯 “나와 같은 자”(니삼 72 : 27)가 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감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었느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로 왔으며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올 것에 관하여 기록된 경전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또한 끝이라.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 진대, 내가 그를 받아들일지니, 이같은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이라. 보라 이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고 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지어다.” (니삼 9 : 15, 16, 18, 22)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복음은 거룩한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간증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

내세의 고향, 영의 세계

데일 시 모리슨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로 교회의 여러 지역의 학생들과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다음에 올 영의 세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대단한 욕망과 영의 세계란 토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회의적인 반응이 그것입니다.

성스러운 문제를 토론할 때에는 항상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세에서 일반적으로 영의 세계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귀신 이야기나 악마를 숭배하는 등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이 그곳에 계시며,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전하고 성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에서 토론되어야 합니다.

더우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은 생과 사의 목적을 연구하여야 하며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 더 열심히" "주야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한 지식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24페이지)

우리는 존재의 본성을 이해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탐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이 지상의 존재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보화에 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하나인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경험은, 삶과 죽음과 영의 세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간증은 슬플 때 위안을 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우리의 존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두 아들 중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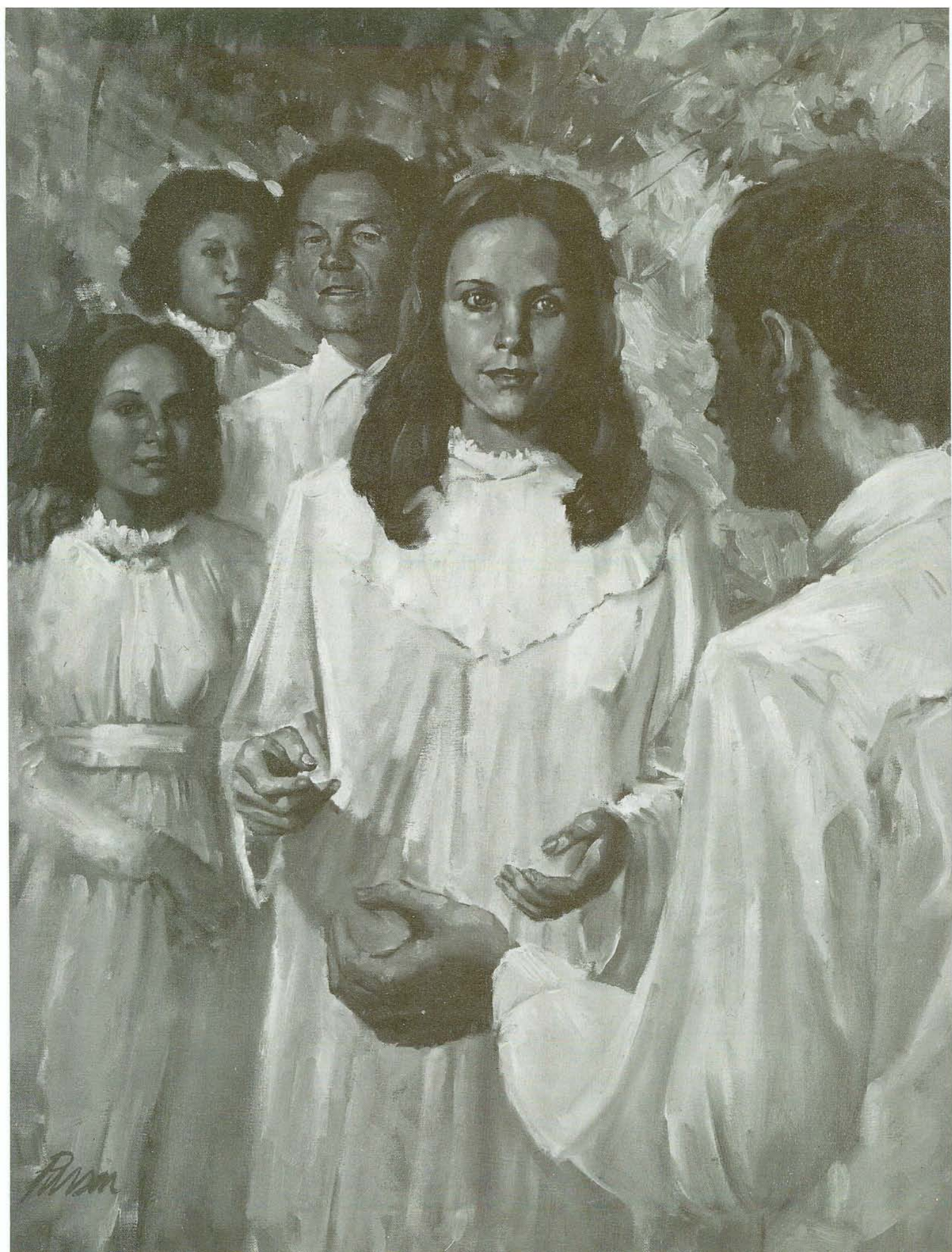
아이는 다섯 살에 죽었고 또 한 아이는 일곱 살에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고관절염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크면 고향에서나 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나에게 큰 자랑이 되리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아이의 죽은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잠자는 동안에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내 아들을 꼭 붙들고는 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싸웠습니다. 결국 아들을 데리러 온 사자로부터 아들을 빼어놓는 데 성공을 했으나, 그러느라고 발을 헛디더 아들 위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꿈에서 아들의 아픈 둔부 위로 넘어졌습니다. 아이의 비명 소리는 나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집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뛰어나오자 조셉 이 데일러 형제를 만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아내가 우리 아이 하나를 데리러 왔다면 나는 그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겠소. 그 아이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겠소. 충실하게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간 어머니라면 그녀의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을 알 것이고, 그 아이가 일생을 불구로 살게 될 것인지, 그 아이가 인생의 시련에서 구제되어 나오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랜트 형제님,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드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사망의 그림자 속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만이 아드님을 데리고 가서 아드님을 돌보실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일러 형제님, 형제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내가 또 나타나면 막지 말고 아이를 보내 주어야겠군요.'

"그렇게 절정한 후에, 형 비 에프 그랜트가 깨우는 바람에 꿈을 깬 것입니다. 그는 병든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나를 방으로 부르더니 아



이가 죽어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앞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나와 살아 있는 아내 사이에는 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죽은 어머니가 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같이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 있는 아내에게 몸을 돌려, ‘이상한 느낌이 없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래요, 히버의 어머니가 와 앉아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기다리는 것만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외아들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 했습니다. 나는 매우 다정 다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친구의 성공에 대하여 기쁨의 눈물도 흘렸고, 친구의 곤경에 대한 슬픔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 어린 아들이 죽어 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나의 살아 있는 아내, 나의 형,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평온하고 아늑한 느낌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느낌은 나의 일생에 느꼈던 어느 것보다 위대한 느낌이었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0년 6월, 330, 383페이지)

말일성도의 교리에 따르면, 영의 세계는 모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며, 그들이 영과 육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는 부활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나 부활하신 주님이나 기타 다른 부활한 자가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 지점이며, 육신을 입지 않은 영들이 자기 이 세상에서 행한 바에 따라 여러 가지 상태에서 사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엘마는 천사에게서 배운 것을 아들 코리엔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엘 40:11) 영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면전, 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조셉 필딩 스미스,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메저렛 출판사, 1958, 2:84-87 참조), 영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엘 40:12) 모로나이도 죽기 직전에 이와 같은 축복받은 영의 세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곧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나의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되며 공중을 나는 승리를 얻어,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여호와와의 즐거운 심판대에서 만날 때까지 쉬리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낙원에서 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죄 많고 불의한 영들은, 보라 저들이 선보다는 악을 택하여 주님의 영

을 조금도 얻지 못하였으며, 악마가 이 영들을 저의 뜻대로 하여 이들을 차지하였으니, 이 영들은 어둠의 곳으로 쫓겨 날 것이다. 저들이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겠으니, 이는 저들이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저지른 저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다.”(엘 40:13)

낙원이 의로운 자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듯이 영의 세계의 영육도 악한 자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에 대하여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부활 때까지 곧 주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자기 일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마귀로부터 구속을 받지 못할 자니라.”(교성 76:85)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 때가 충만하게 될 때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밟아 아래 굴복시키사 자기가 사업을 완성하실 그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고통을 겪을지니라.”(교성 76:106, 계 20:13 참조) 영의 세계의 지옥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히 축박에서 놓이게 됩니다. (나이 9:6-12 참조) “끝까지 불의한 자” 멸망의 자식은 지옥에 남게 되겠으나, 이 지옥은 영의 세계의 지옥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성 76:43-49 참조) 멸망의 자식이 부활하면 영의 세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물론 교리, 제2판, 762페이지)

베드로는 영의 세계를 “옥”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벧전 3:18-20, 4:6) 그러나 영의 세계는 고통을 받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배우고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지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부분적인 기회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1893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은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영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전파의 성공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장로들이 행하는 전도 사업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은 지금의 천 배나 나아질 것입니다.”(밀레니얼 스타 56:50)

간단히 말해서 영의 세계란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나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 부활 때까지 똑같은 영의 세계에 잡니다.”(가르침, 310페이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께서 죽어 가는 강도들에게 죽은 후에 낙원에 함께 있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흠정역 성서 역자들이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낙원이란 무엇입니까? 단어는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원래의 의미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낙원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저에게 항의를 할 기

회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회랍 원어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영의 세계에 있으리라. 그곳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너의 물음에 대답해 줄것이라 베드로는 예수께서 영육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을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벧전, 3장, 19절) 이는 주님의 음성을 받는 자들이 지상에 살아 있는 자들의 대리 의식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가르침, 309 페이지) 또한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회랍어의 헤이디즈(지하계)와 히브리어의 시오울(저승)은 모든 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헤이디즈, 시오울, 낙원, 영육은 모두 그 의미가 같습니다. 즉 영의 세계라는 뜻입니다.”(가르침, 310페이지) 예언자의 이같은 설명은 구세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말일의 계시 역시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서의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 줍니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영은 만져 볼 수 있는 개체입니다. 브리감 영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영은 극히 정교한 물질로 이루어져 인간의 거친 기관으로 만져 볼 수 없을지라도 영은 육체와도 같은 것입니다.”(브리감영 설교집, 379페이지, 교성 131 : 7-8 참조)

영의 세계의 위치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장례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운 영은, “보다 훌륭하고 영화로운 것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떠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타오르는 불 속에 인봉된 그들은 우리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가르침, 326페이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의 세계를 방문하였다가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으로 인하여 현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어떤 자매는 예언자가 가르치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친구와 친척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들 중에 나의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는 그의 아이들 중에 담배와 술 등 몸을 해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프다고 말했습니다.”(르로이 시 스노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엘라 쟈슨의 이야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29년 10월호, 974페이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의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의 복지와 행복에 크게 염려하고 계시며, 필요하면 우리에게 경고와 견책 또는 주의를 주기 위하여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조셉 에프스미스, 복음 교리, 436페이지)

영 대관장은 영의 세계란 “이 지상에 있다”(브리감 영 설교집, 376페이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연차 대회에서 에즈라 탭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지상과 같은 다음 세상 사이에 드리워진 장막은 매우 얇습니다. 먼저 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엔사인, 1971년 7월호, 33페이지)

분명히 영의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영이 있듯이 이 지상에는 영이 있습니다.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태어난 바로 이 혹성, 곧 지구와 거의 비슷한 다른 혹성에는 외적인 유한한 세계 외에 내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전자는 유한한 육체를 입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며, 후자는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자의 혹성과 후자의 혹성 사이에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으며 그것 때문에 영적인 혹성에 있는 모든 물체는 유한한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신학의 열쇠, 제9판, 테저렛 서적사, 1665, 127-27페이지)

분명히 영의 세계에 있는 의로운 사람은 이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정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권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충실한 장로들은 영의 세계에 갈 때 이 지상에서 지니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권능과 신권을 갖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32페이지. 교성 124 : 130 참조) 그리하여 신권의 축복이 영의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장막을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어떤 장로는 그곳에서 본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나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상 생활의 연장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 스테이크에서 다른 스테이크로 옮겨 간 것과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보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피터 이 존슨, 상호부조회지, 1920년 8월, 455페이지) 엘라 쟈슨도 영의 세계에 방문하였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인이 된 십이사도 평의회 한 분이신 러저 클러슨 장로는 그녀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안내원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안내원의 안내로 굉장히 큰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바빠 움직였으며 어디서든지 게으름이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르로이 시 스노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29년 10월, 977페이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승영에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방문한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가 보신 세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의식을 잃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뒤로는 아름다운 호수를 등지고 큰 나무숲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라고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으며 호수에는 보우트도 없었고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를 알려 줄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지상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있나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호수와 나무 숲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아무도 그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곧 나는 숲 사이의 길을 발견하였는데 그 길은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다니지 않은 길인 듯이 풀이 무성해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 조금 후에 할아버지를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7년 3월, 139페이지)

분명히 영의 세계에는 갓난 아기나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모두 성인 남녀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지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지녔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나 어린이가 죽은 경우, 그 영은 곧 영의 세계에서 과거의 성숙했던 자태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할 때 다시 육체를 입을 때, 그들은 자연적으로 의롭고 합당한 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도록 어린이로 부활하게 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자녀의 영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불사불멸의 상태였으며, 자녀가 죽은 후에는 역시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 살았더라면 완전한 상태로 신체적으로 성장하였을 모습이 됩니다. 죽은 자녀는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자로서 올 때에는 에드워드 헨터 감독의 아들(그 아이는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이 감독을 찾아왔던 것과 같이 완전하게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나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을 밝히며 나타날 것입니다.

“헨터 감독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람 형제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분명히 그 어린 아이를 둔었는데, 크게, 훌륭하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 나타나서 자기가 내 아들이라니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나의 아버지(하이람 스미스, 축복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장성하였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도 장성한 영으로서 영의 세

계에서 육신을 입기 전에 이미 장성한 형상을 갖추게 되었고, 그와 같은 장성한 형상의 영은 죽은 후에 다시 나타나고 부활할 때에도 다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복음 교리, 제5판, 데저벳 서적사, 1939년 455페이지.)

일찍 죽은 자녀는 분명히 구혼, 결혼 등의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몇 가지 걱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관한 계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인봉으로 이끄는 일반적인 관계가 생활의 계속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벨빈 제이 벨라드 장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되시는 여러분은 아마 죽은 아이를 걱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하여 인봉 의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나도 여섯 살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죽은 후 영의 세계에서 장성한 것을 보았으며,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의지와 결단력을 가졌었고, 때가 이르면, 합당한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축복과 인봉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그들은 모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죽어서 누군가에게 인봉되지 않은 여러분의 딸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봉의 권능은 이 교회와 함께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방법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보다 더 빨리 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도 특권과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그들은 안전합니다.”(브라이얼트 에스 핑클리, 벨빈 벨라드의 설교와 선교 사업, 데저벳 출판사, 1949년, 260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을 통하여 “책임 을 질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 아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음을” 보았습니다. (10절) 더우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사산아도 부활할 때 어린 아이로 부활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도의 벗 드림

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산아를 출생한 어머니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활한 후에 자매님은 이 아이를 충만한 영으로 키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회생이 있고, 성장이 있으며, 발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사랑합니다. 이 진리는 나의 영혼에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교리, 455—56페이지 이 가르침, 196—97, 200, 368페이지 참조) 요셉 스미스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나이 많아 죽는 사람과 젊어서 죽는 사람과의 차이란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하늘(영의 세계)과 영원한 빛과 영광에서 오래 사는 것이며, 비참하고 악한 세상에서 좀더 일찍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이를 보지 못하고는 잃은 것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없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가르침, 197페이지)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복음의 진리로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욕망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윌포드 우드럽의 젊은 아내 피베가 돌아가셨을 때 우드럽 대관장님은 그녀를 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꾸짖으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녀의 영이 그녀의 육신으로 되돌아왔으며, 그 순간부터 그녀는 완전하여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내 아내가 후에 나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아내의 영은 육체에서 떠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자신의 육체와 울고 있는 자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나를 보고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을 때 두 분이 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자 중 한 사람이 그녀에게 영의 세계에 가서 쉬든지 아니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 이 세상에서의 주교를 계속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남편에게 돌아간다면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생활하도록 부름을 받은 생활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격동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과 자녀의 상황을 보는 그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결정한 순간 신앙의 힘이 내게 임하였으며, 내가 그녀를 축복하였을 때 그녀의 영이 육체로 들어갔습니다…….”(나의 일지, 제4판, 데저렛 뉴스, 1909, 59—60페이지)

영의 세계에 관한 말일성도의 견해는 그곳에서 선교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집약적인 선교 사업은 영의 세계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이 지상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복음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처럼, 영의 세계에서 상당한 선교 사업이 행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4 : 285) 이 위대한 사업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송고한 통찰력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29—37절 참조)

이러한 성스러운 성역의 메시지는 누가 받게 됩니까? 해의 왕국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시현이 그 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 죽은 형 앨빈이 어떻게 해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로서 지상에 더 머물러 있었을진대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도 모두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니,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들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라.”(7—9 절)

그러나 이와 같은 영의 세계에서의 성역은 죽은 자의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산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하늘에서 제정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의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원리에 따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가르침, 308페이지) 또한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신권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얻어야 하며, 그것은 곧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집의 모든 의식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가르침, 308페이지) 죽은 사람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을 위한 의식을 행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믿고 회개하며,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영의 세계는 육신을 입지 못한 영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만질 수 있고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물질적인 세계로서, 많은 선교 사업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있으며, 사랑하는 친척과의 가족선으로 우리를 매어 주는 곳입니다.

*

데일 시모슨 형제는 산 도세, 캘리포니아 신학 연구원 지역 책임자로서 캘리포니아 산탄 클라라 스테이크 칠십인 정교회 선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샌드라 :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기도 중에 가장 잊지 못할 기도는 아버지와 언니와 오빠와 함께 무릎을 꿇고 녀 달된 쌍둥이 중 한 아이인 “린다”를 위하여 드렸던 기도입니다.

린다는 밤새도록 심한 열로 앓았습니다. 어머니는 쌍둥이와 함께 병원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뜯눈으로 병원에서 보내다가 집에 오셔서 피곤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근심에 싸인 모습을 보고 한편 크게 놀라며 약간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린다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간구하던 아빠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나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간구가 들려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 린다가 죽었을 때 나는 주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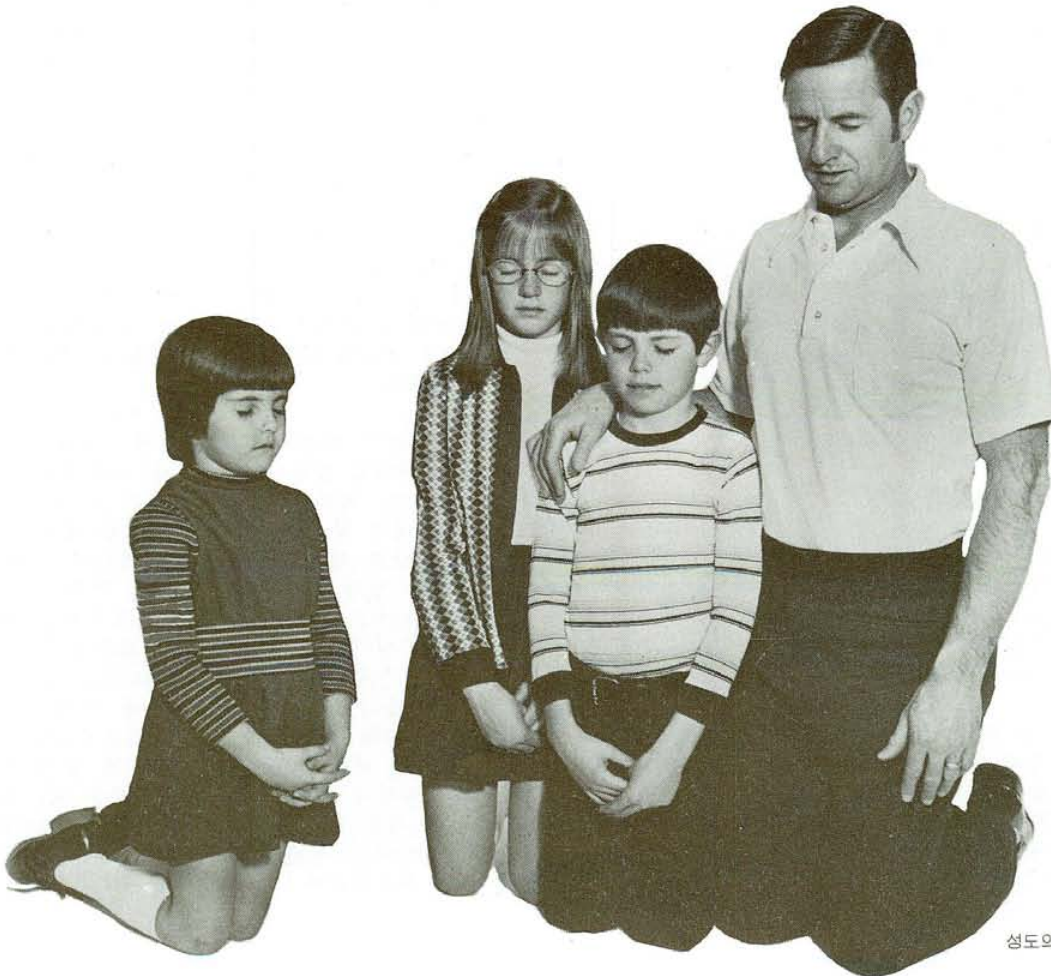
이제 나는 여덟 자녀의 어머니로서, 내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기도르써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로 대화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듯이 느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일상적인 일을 듣고 계신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성취하려는 관심사인 것입니다.

스티븐과 샌드라 : 부모로서 우리는 효과적인 기도보다 인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침

스티븐 알과 샌드라 코우비



생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불행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문제, 즉 직장, 재정, 교회 임무 등등의 문제에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93편 40—50절에서 주님은 대관장단(요셉 스미스 이세, 시드니 리그돈, 프레데릭 지 윌리엄즈)와 관리 감독(뉴엘 케이 휘트니)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프레데릭 지 윌리엄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계명에 따라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나니,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지배하고 있다. 네가 괴로움을 받는 까닭은 곧 이것이니라.” 뉴엘 케이 휘트니에게도 주님께서 “책망받을 필요가 있나니, 가정에 질서를 세워 좀더 근면하고 가정에 마음을 쓰게 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처소에서 옮기우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4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가 너희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것은 말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첫째 모범과 사랑을 보임으로써 자녀를 가르치고 둘째는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설교보다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을 열배나 더 효과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지상의 부모님과 원만하고 정직한 관계를 가질 때,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그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나 학생이나 구도자로부터 불친절하고 위선적인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잉 반응이나 노한 반응을 두려워 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전에는 부모가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범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르치고 교훈으로 다시 강조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기도의 표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만족스러운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공부하겠다는 목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표준을 택하였습니다: 기도의 네 단계를 배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함,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함, 듣고 대답함.

1. 기도의 4. 단계를 배움. 우리는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부모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시작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구도자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4 단계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2.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3. “우리가……하게 해주세요.” 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함. 우리가 부모로서 친절과 인내를 보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다 높은 단계의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같은 기도문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으로부터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의견과 표현의 종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잠시 동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며 왜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의 명상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족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나 “늘 함께 합소서”나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과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3. 가끔 돌아 가면서 기도하다가 각 가족에게 특별히 기도로 간구하고 싶은 특별한 필요 사항이나 축복을 말하게 합니다.

4. 기도하기 직전에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련.”

5.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의 기도에 대하여 칭찬해 줍니다. “네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거야.”

6. 자녀에게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어떤 기도는 몇 마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 자녀들이 거의 매번 같은 기도문만을 되풀이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일 때, 우리는 그들이 그와 같은 습관을 버리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도란 아무 곳에서나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려 노력합니다.

8. 가족 기도를 마친 후에는, 선교사들이 흔히 하는 방법으로,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남아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9. 종종 우리는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성격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자녀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필요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어려운 원리이며, 특히 십대의 딸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딸아이는 여러 달을 두고 일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엄마,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주님은 마음속으로 원하는 의로운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딸아이는 복음에 대한 간증도 갖고 있었고 큰 고등학교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딸아이가 교회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투표 시간이 이르렀을 때, 딸아이가 당선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선되었을 때 딸아이는 완전히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낙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다음달 딸아이는 고등 학교 신학 연구원 중등부 역원이 될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신학 연구원 평의회 모든 의원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 회장은 학생 회장 출마를 포기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 딸의 창의력과 사람들을 끄는 선교사로서의 재능이 필요하며, 그 애가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의 발전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애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에 딸아이는 여러 가지의 영적인 경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깊고 의미있는 우정을 키웠으며, 몇몇 사람들을 교회 활동에 이끄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딸아이는 내게 기도와 경전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당선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다른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했던 거예요.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이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3.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함……듣고 대답함. 서로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듣고 들은 것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로써 주님을 지시하고 누구를 축복하라고 명합니다.

7. 자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음성(느낌)에 만족하겠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기대감을 불러넣어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은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그리고 고대(경전)와 현대(대화, 글)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교회에서 임무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항상 성신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학 연구원 학생들에게 십이사도 평의회 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라디오의 송신기를 성신에 비유하고, 우리를 리시버에 비유하며, 그리스도의 영을 라디오 전파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내가 기도의 응답에 귀를 기울임에 대하여 리스 대학 영적인 모임에서 말씀하였을 때, 한 여학생이 내게로 와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우비 형제님,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단지 바라는 것에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따뜻한 느낌을 느끼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를 바라지만 헛것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는 나의 딸 마리아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애야, 마음속으로 네 기도를 들어 보아라. 그리고 네 느낌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거야.”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특정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모든 일을 다 했는지를 속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선행되는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교성 130:21) 그러면 주님은 그녀의 양심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음니다마는 별로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는걸요.” 나는 그것을 어디서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요”라고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는 주님의 왕국의 일부이며, 마리아가 받은 진실

된 원리는 그녀의 마음과 정신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성신은 각 상황에서 요구되는 요구 사항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리를 깨우쳐 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거둬 말하거니와, 너희가 주의 길에 임하여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니파이서서 32:5)

8. 주님의 음성에 대답함. 우리는 자녀에게 양심에 따라 생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님에게서 듣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다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선교 사업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더 성적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말과 행동을 인도해 줄 성령을 먼저 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교회 모임에 관심을 더욱 갖고 경전을 연구하여, 진실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음으로써 끊임없이 더욱 많은 빛과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은 올바른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지시해 줍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현재의 기회와 목표에 관계되는 지혜가 담겨 있는 성구를 외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정의 밤에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빛과 진리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빛과 진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면 주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정한 시간대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와 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면,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특별한 의미를 알게 되면, 그는 결코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일이 변화되고 분명히 보다 생기있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신디아에게 “지금까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그녀의 18번째 생일에 물었습니다. 신디아는 지금도 망설이지 않고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위에 우리의 생을 사는 것이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의 힘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의지해서, 좌절된 꿈이나 낙담이나 환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실제의 내 자신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어요.”

그 순간 우리는 큰 보상을 느꼈으며 안도감을 갖게 되었고 놀라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시험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실망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투쟁이요, 노력입니다. 그러나 행운이 아니라 율법이 지배하며,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과 복음 생활로써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다시 대답하도록 가르치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귀를 기울이고, 약속하고, 순종하고, 가르칠 것을 다짐합니다. *

“2000여 명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린 니메어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에 있는 어스틴 병원의 어린이 병동에서 5살 먹은 매튜가 물리 치료를 받았다. 간호원은 그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물리 치료사도 그의 태도에 감동되어 걸어다닐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한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다. 며칠만에 그는 “마술 지팡이”의 덕으로 걸어다닐 수 있었다.

이것은 1975년 4월의 일로, 우리 아들 매튜가 교통 사고로 두개골이 2×2 인치나 파열되고, 병원에 옮겨지기 전에 위험량 이상의 출혈이 있는 지 10일 후의 일이다. 사고 직후 사람들이 달려 나는 아들의 모습을 바로 볼 수는 없었는데, 이토록 보지 못하게 말린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되나 나는 지금도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침실로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다만 “주님이시여, 아들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제발 그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였다.

긴장을 더해 준 것은 우리가 찾은 첫번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특수 치료를 해야 한다고 아들의 입원을 거절한 일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매튜의 회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살아난다 해도 평생 동안 불구자의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조용히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를 데려가 줍소서 하고 기도드렸다. 그 순간 나는 차가 지나가는 교차로에서마다 교통 순경이 매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산히 교통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토록 신경을 써 주는데 내가 포기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앞섰다. 매튜는 여러 차례 숨을 멈추었으며, 그때마다 내 숨도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남편과 친구가 때에 맞게 도착되어 머리에 성별된 기름으로 병자 축복을 할 수 없었으므로 얼굴을 어루만지며 축복을 했다. 그들은 영적으로 확신을 얻었다. 그는 이제 주님의 손에 놓인 것이다. 존과 나는 수술이 진행되는 4시간을 밖에서 기도하며 보냈다.

간절히 몇 차례의 기도를 올린 다음 우리는 마침내 아들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였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매튜가 생명을 잃게 되지 않으면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강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와 수술이 예상보다 수월하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어 안도의 한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뇌의 상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의사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였다.

매튜는 4일 후에야 의식을 차렸다. 3일 후에는 왼쪽 옆구리가 마비되고 왼쪽 눈이 감긴 채로 어린이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신력만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다. 마비로 인한 뒤틀린 얼굴에 눈물이 서린 채로 매튜는 “엄마 다시 걸을 수 있게 돼?”하며 물었다. 나는 용기를 갖고 “물론이지. 걸을 수 있어. 2000여 명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는 나의 대답에 놀라는 것 같았다. “정말이에요?”하고 미소를 띠며 다시 물었다.

그때로부터 매튜는 안간힘을 써 가며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기도의 힘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면 나였지 매튜는 아니었다. 그는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꼈고 그들을 실망시켜 주지 않았다. 천성이 고집장이었지만 그의 인내력은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힘을 발휘하게 해주었다.

사실 그의 아버지나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 준 것에 놀랐다. 나는 사고 직후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뉴질랜드 신전에서 일하는 절친한 친구는 이유도 모른 채 그의 이름을 신전 기원자 명단에 올려 주었다. 매튜의 수술을 기다리며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그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다는 사실도 알 리가 없었다. 와드에서는 특별 금식일을 선포했고, 이 소문이 스테이크에 퍼지자 전 스테이크 회원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다. 지역 감리 교회와 성공회에서도 매튜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로시타는 노랑색 화장지에서 마지막으로 삼각형 모양을 오려 별 모양의 대나무 틀에 조심스럽게 갖다 붙였습니다. “자, 이제 등이 완성되었어.” 하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짙은 초에 불을 붙이고 등 안의 촛대에 꽂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데!” 하며 로시타는

감탄했습니다. 이를 후면 성탄절이며, 그녀가 사는 필리핀 마을은 축제의 분위기에 싸이게 됩니다. 그녀는 마을에 울려 퍼지는 “성탄절”을 알리는 종소리와 인사에 잠이 깰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끝나면 로시타와 친구들은 캐럴을 부르며 친구네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네 친구들이 모여 구주 탄생극을 공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등

불 행렬입니다.

성탄절 밤이 깊으면 필리핀 마을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만든 등에 불을 밝혀 행렬을 합니다. 가장 멋진 등에 상이 주어집니다. 그녀 마을에서는 금년 성탄절 등불 대회 우승자에게 학교 여선생님과 같이 수도인 마닐라를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가 꼭 우승하고 말거야.” 하며 로시타는 기쁨에 차 중얼거렸습니다.

등불의 기적

버너딘 비티



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전 처음 보는 대도시의 대로를 걸어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 지은 성탄절 옷을 입으면 얼마나 성숙했나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는 오빠의 지팡이 소리가 로시타를 잠에서 깨게 했습니다.

“안 돼, 폐폐, 안 돼.” 로시타는 오빠 주안이 그의 원숭이 친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폐폐는 벌써 열린 창을 통해 로시타가 일을 하는 책상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로시타는 폐폐를 잡으려 했으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앞발로 로시타가 정성껏 만든 등을 차 버렸습니다. 불꽃이 곧 로시타가 만든 장식품에 옮겨 붙었습니다.

로시타는 담요를 들고 불길을 막았습니다. 로시타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만든 아름다운 등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폐폐를 등에 올려 놓고 눈이 둥그레져 자기를 쳐다보는 주안을 보았습니다.

“오빠, 난 몰라, 어떻게 해!” 하며 로시타는 울었습니다. “오빠와 저 못난 폐폐가 마닐라에 갈 기회를 망쳐 버렸어. 난 꼭 가고 싶었던 말이야!”

“로시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며 주안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등을 굽혀 타다 남은 등을 집었습니다. “내가 고쳐 줄게!”

“그걸 고치다니 기적을 바라

지!”하며 로시타는 투덜거렸습니다. “틀은 고칠 수 있어도 종이가 모자란단 말야.” 그녀는 노랑색 화장지가 들어 있던 상자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년에 쓰다 남은 빨강, 초록, 청색, 흰색 종이도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 내가 만들어 볼게.” 하며



주안은 결의에 찬 얼굴로 다가섰습니다.

로시타는 고개를 저어 보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금년에 1등을 차지하긴 다 틀렸어.”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페페만 아니었다면 1등을 할텐데”하며 주안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잊어 버려.”하며 로시타는 책을 한 권 들고 밖의 계단 쪽으로 가 앉았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자꾸 주안에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거칠게 대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로시타는 오빠를 정말로 좋아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용기에 대해 늘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주안은 절름발이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었습니다.

한참 만에 로시타는 주안과 자신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시장에 가서 다음날까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안은 책상 위에 있는 전구를 켜었습니다. 로시타는 완전히 고쳐

진 등을 보고 놀랐습니다. 페페는 그의 주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얼 그리 곰곰이 생각해 오빠?”하고 로시타가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화장지를 파는 가게가 없거든.”

“좋은 생각이 있어.”하며 주안이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로시타는 장에서 이불을 꺼내 자리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안은 책상에 앉아 색종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로시타는 잠시 오빠를 보다가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다가 한 번 깨었고, 그때까지 오빠가 책상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빠, 이제 자야 해”하고 말했습니다. “등은 잊어도 돼요.”

주안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시타가 잠에서 깨었을 때 가는 아침 햇살이 창을 뚫고 비쳐 들어왔습니다. 주안은 그때까지도 책상에 있었습니다.

“오빠!”하며 로시타는 외쳤습니다. “밤을 새웠어!”

주안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등을 옆으로 밀어 놓고 밤을 새우며 만든 등에 불을 당겼습니다.

로시타는 숨을 죽였습니다. 주안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흰색 종이를 작게 오려 내 조심스럽게 함께 붙여 등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멋있어 오빠!”하며 로시타는 소리쳤습니다. “성당 창문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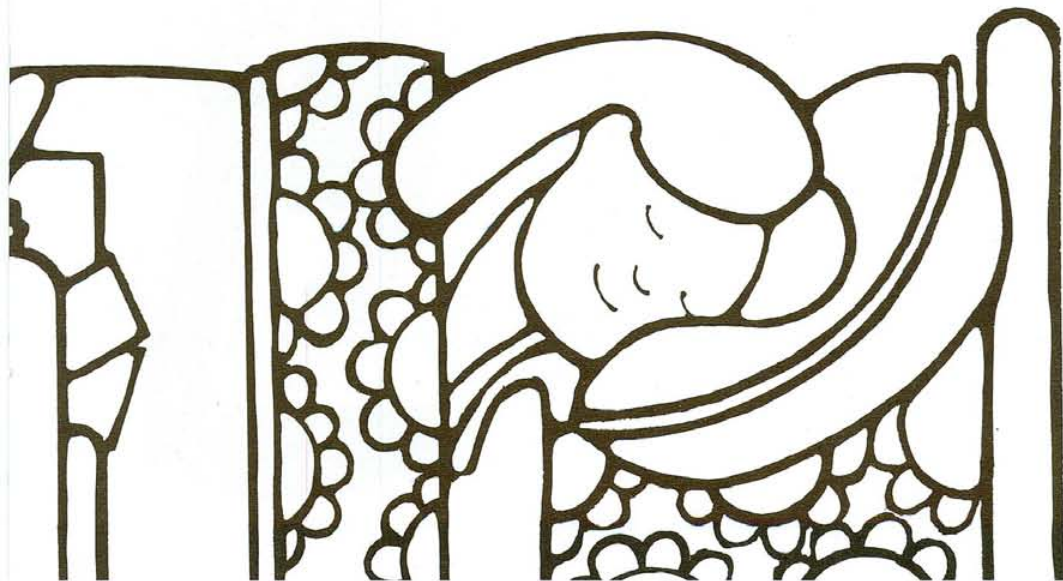
“요셉의 옷과도 같지!”하고 주안이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고쳐 준다고 했지. 그렇지만 넌 기적일 꺼라고 말했어.”

“정말, 기적이야!”하며 로시타는 소리 질렀습니다.

주안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

“알아, 오빠.”하고 로시타는 오빠인 주안을 얼싸안았습니다. 갑자기 대회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이 밤을 새우며 자기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일해 준 오빠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거야.”하며 로시타는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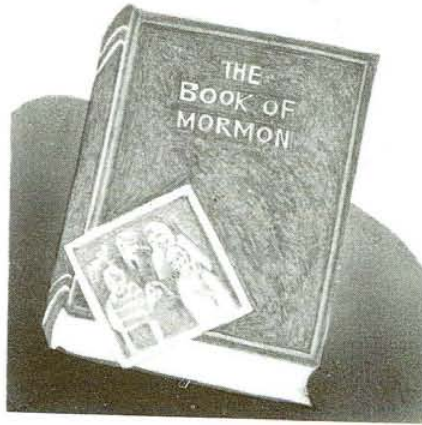
제 이름은 진저 린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늘 즐겨 왔지만 작년 같은 성탄절을 지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각자 받은 축복에 대해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추수 감사절부터 성탄절의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에 넘쳐 있어 그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만 가장 멋진 계획은 성탄절을 맞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대가족이고, 그다음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행복감입니다. 우리는 이 두가지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솔트레이크 신전까

지는 자동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그곳에 가는 것이 계획의 일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날 선물을 교환하고 식사를 든 후 집안을 청소하고 정찬을 준비해 놓고 신전 주변으로 가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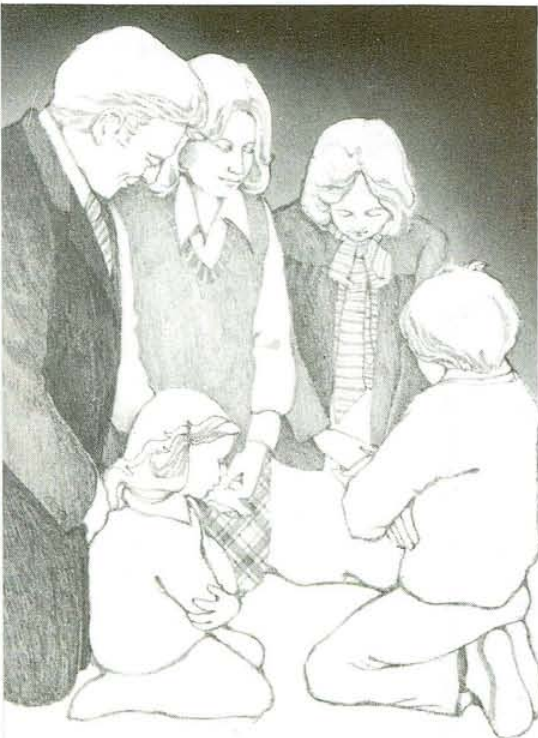
와 함께 성탄절을 보낼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찾으러 방문자 센터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가장 아끼는 은촛대에 촛불을 켜 놓고, 벽난로에 불을 피워 두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불을 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물문경 속표지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각 사진 밑에 간단한 메시지를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물문경은 이날 저녁에 초대된 사람에게 줄 선물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짜고 몹시 기뻐하며 주님이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추수 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우리는 가족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매일을

마침내 성탄절이 왔고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는데 의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방문자 센터에는 계획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까지는 모두가 식사



절 처럼



를 끝내지 않았을까 또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하 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몇몇을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벌써 끝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괜찮습니다. 사양

하겠습니다.”라고 당황해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시간주에서 온 한 부부와 17 세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초청에 당황한 듯했으나, 몹시 배가 고파 식당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전에 휴가 중에 방문자 센터를 온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아들에게 말일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 주고 싶어 테리고 왔다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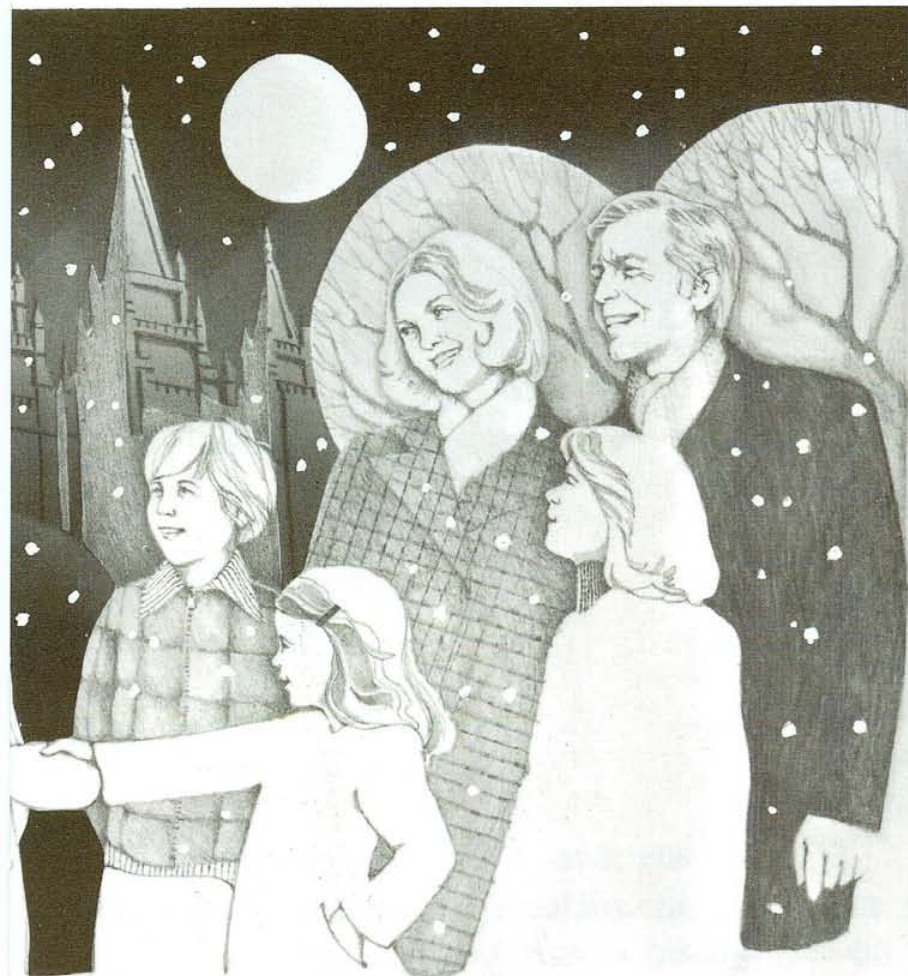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일성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아는 방법은 직접 그들의 가정에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죠. 참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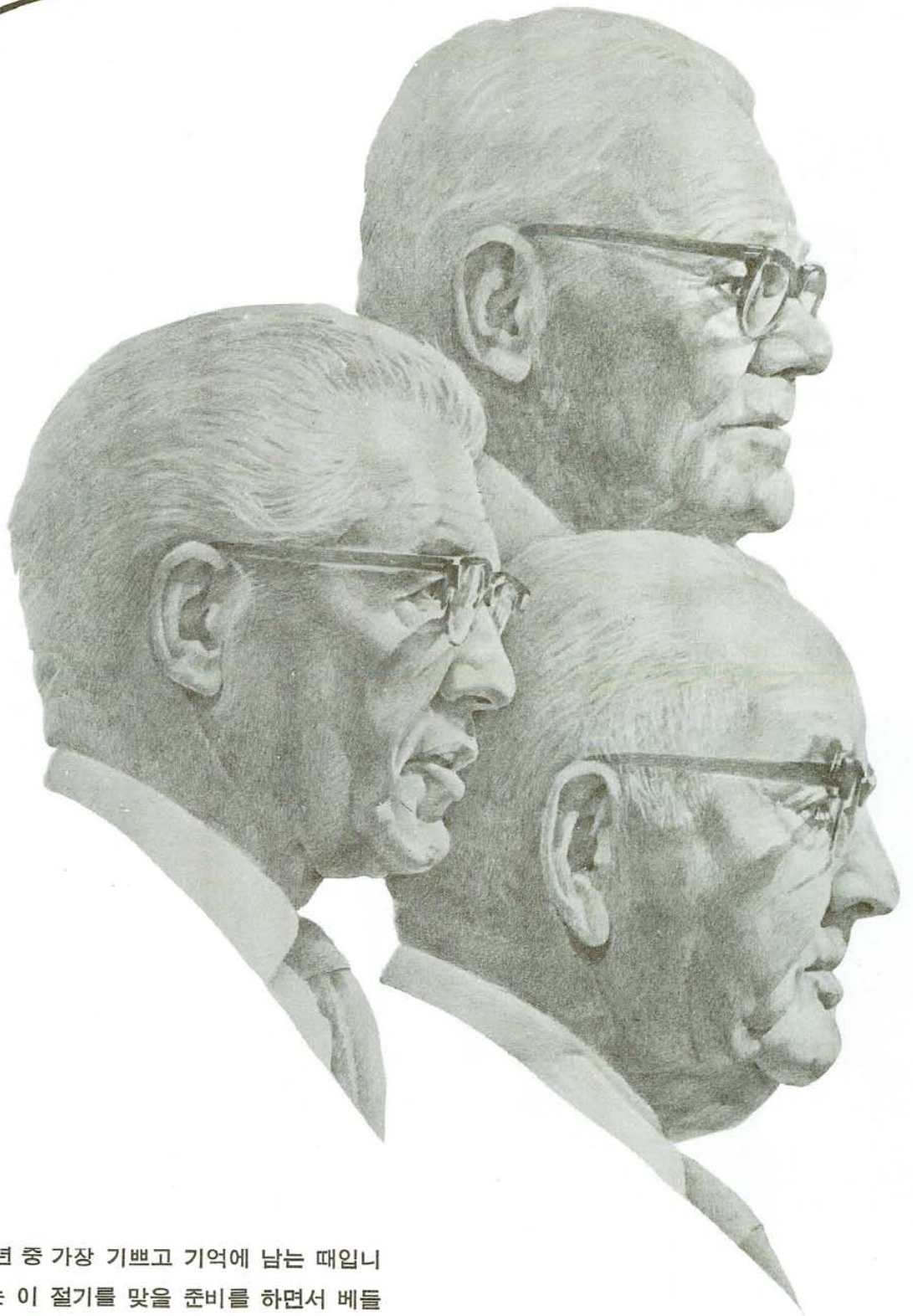
우리는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광차 온 두 젊은 여자를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들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식사를 못해 이런 기회를 반가워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교회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즐거운 성탄 저녁을 보냈습니다. 작별을 하기 전에 그들은 몇 차례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온 가족은 이번 여행의 가장 잊지 못할 추억으로 이날 저녁 초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이며, 그 기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자매들은 우리가 작별 선물로 사진이 든 몰몬경을 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우리 가족은 식기를 닦기 위해 부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으로 성탄절의 참 정신을 느꼈고 지금까지 보낸 어느 성탄절보다도 뜻깊은 성탄절을 보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탄절의 느낌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성탄절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일이며, 매일을 성탄절처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성탄절은 일년 중 가장 기쁘고 기억에 남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베들레헴에서의 이 날을 생각하게 되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 주신 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관장단도 성탄절을 가족과 친지와 함께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우리를 위해 주신 생

명의 은사를 되새겨 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아 그들은 전세계의 소년 소녀와 함께 그들의 추억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관장단의 성탄절 추억

또 다시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맞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헬을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에 킴블 자매와 나는 성탄절 전야에 꿈에 그리던 베들레헬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12월 24일은 아름다운 날씨의 일요일이었으며, 그날 새벽 우리는 이락 바그다드의 어느 가정에 초대되어 성찬식을 갖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갔고 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전세계 도처에서 성일 전야를 맞으러 사람들이 몰려 들었으며, 베들레헬으로 가는 18킬로의 고개길은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베들레헬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 광장에 찬 인파를 보고서 당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실 만한 방이 없었다는 말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밀리는 인파로 혼잡한 거리에 스피커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졌고, 4세기 경에 세워진 교회당에서는 종소리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실제의 구유라고 믿는 장소의 석굴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석굴에 이르는 문은 낮았고 길은 좁았습니다. 어려움 끝에 우리는 그 곳에 닿았습니다. 여러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곳에 모인 군중들 틈에서 우리는 모든 탄생 중에서도 으뜸되는 예수의 탄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3킬로 떨어진 목초지에 와서 그날의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그 곳에 우리 일행 4명이 서서 첫 성탄 전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도 밝았으며, 하늘은 별로 수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귀에는 마치 하늘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 베들레헬의 반짝이는 등불을 보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오 베들레헬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네 어찌 모르냐

나는 곧 베들레헬에서 맞은 성탄절과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생활 방법을 따를 때 언젠가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됨을 알고 있으며, 우리를 위해 보여 주신 그분의 완전하신 삶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어린 시절의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시에 매우 가난했었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

넋 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서는 의복과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모두 집에서 만든 것들이었고 수도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곤 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큰 사랑을 나누었고 훌륭한 부모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시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모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와 간증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나에게 특별한 느낌을 일깨워 주곤 하였습니다. 매년 우리 가족은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 탄생극을 재연해 보고, 이 사건의 중요성과 인류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곤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저 스크루지 영감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던 “영터리 성탄절”이란 말을 기억합니다. 한번은 명랑한 그의 조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항상 성탄절은 기쁘고, 즐겁고, 친절과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찬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성탄절 망령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 “난 내 생애에서 내가 만든 사슬 옷을 입고 있오. 나는 이것을 내 자유의지로 그 옷을 입었오.”라고 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이웃에 대한 자신의 인식함을 깨닫게 되어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성탄절 망령이 나타날 때쯤 해서는 “오늘 나에게 혼을 내준다면, 달게 받겠오.”라고 말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미래의 성탄절 망령이 나타났을 때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돕지 못해 비참한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외로운 죽음을 예견한 그는 “제발 저를 믿어 주세요. 마음속 깊이 성탄절을 지키겠사오며, 일년 내내 성탄절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잘못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즉시 선한 행동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성탄절에 후회를 하지 않도록 생활합시다. 현재의 성탄절이 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온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합시다.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며 보다 행복한 성탄일을 맞이합시다. 우리 모두 “저 사람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오늘날 젊은이들이 맞는 성탄절은 60여 년 전에 우리가 맞던 성탄절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형과 함께 산에 가서 나무를 끌고 고개를 넘어 집에 와 보니 한쪽 나무잎은 모두 떨어져 버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벽 구석에다 나무잎이 떨어진 곳을 바삭 대고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장식을 했습니다. 종이를 찢어 붙이고 길게 잘라 고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팝콘을 튀겨 실에 꿰어 나무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언제나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삼촌인 캐스킬 톰니는 제재소를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우리 남자 아이들에게는 야구 방망이를 만들어 선물로 주셨고, 여자들을 위해서는 작은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장난감은 오늘날처럼 멋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항상 즐거운 때였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난 때이기 때문입니다.

매리온 지 톰니 부대관장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속주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즐겁고 영예로운 절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12페이지에서 계속
감사했는지 모른다.

놀라운 일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매튜가 사고 후 3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시력도 되찾았고 마비된 얼굴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이제는 왼쪽 손에 온 마비만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매튜가 적어도 6개월은 입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러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옆구리에서 2개의 갈비뼈를 제거해서 머리 두개골 파열 부분을 접합시켜야 했다. 6월 어느 날 3시간에 걸친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 전에 나는 몹시 걱정하였다. 나는 매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전했다. 그는 놀라움과 확신으로 오�히려 나에게 “엄마, 난 멀리 가지 않아요. 곧 돌아올거예요.”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엄습해 오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의 수술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우리 와드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또다시 의사 선생님은 빠른 회복과 훌륭한 정신력에 감탄하였다. 의사 선생님은 것처럼 큰 상처를 입고 살아 남은 사람은 극히 적었다고 말했다. 매튜는 병실 친구들과 침대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놀므로 의사들은 다시 머리를 부딪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일주일만에 매튜를 집으로 보냈다. 7월 말경부터 매튜는 건강을 되찾고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었다.

그토록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도 금식과 기도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되찾게 될 수 있을까? 그렇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였다. 매튜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그는 “아빠가 축복해 주셔서 건강해졌어요.”라고 말했다. 그것이 그에게 힘을 준 동기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도 그에게 힘을 주었다.

9월달 우리 가족이 가족의 영적 발표를 하도록 지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튜의 형이나 누이는 참여할 수 있지만 매튜가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방으로 가서 조용히 간단한 말씀을 준비하였다. 그는 와드 회원들 앞에 서서 조금씩 쉬어 가면서 천천히 그의 간증을 말했다.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그 사람들은 제가 죽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아빠가 저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튜의 신앙이었다. *

린 니메어 자매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 스테이크, 크로이든 와드에 속해 있으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문화의 정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성탄절에 찾아온 손님

어니스트 엔 에크로프

오래 전부터 우리는 거실을 다시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회원에게 집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하신 킴블 매관장님의 권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성탄절을 열심히 준비함으로써 이 권고에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계획된 일이 많고 성탄절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가구 위에는 덮개가 덮여 있었고 구석구석에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양탄자는 성탄절 사흘 전까지도 깔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갔으며 성탄절에 맞추어 이 계획을 끝내려는 우리의 목표는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종일 열심히 일을 한 후 밤에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성탄절 전날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께서 얼마나 우리가 잘 장식을 했는지 보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우리 집을 방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낯선 손님으로 우리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만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은 잠겨져 있었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전에서 돌아서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와 하다가 나는 잠이 깰했습니다. 아직 성탄절 전날 밤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페인트를 칠하고 벽지를 바르고 양탄자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전날 저녁이 되기 하루 전날에도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급한 대로 마무리짓기로 작정했습니다. 현관 홀에도 벽지를 바르기로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피곤하였기 때문에 밤늦게 이 계획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깰 때 우리의 아들 케네스가 현관 홀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은 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나의 아내가 만든 레이스 달린 커어튼을 달고 다른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가 바랐던 대로 또 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성탄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염려했던 대로, 손님들이 성탄절 전날 저녁에 전통적인 스웨덴식의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오후 7시에 왔을 때까지 우리의 준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두 시간 뒤에 식탁이 정리되고 나무가 장식되었으며, 나의 아내는 식탁에 마지막 요리를 내왔습니다. 드디어 전통적인 성탄절 전날 저녁 향연이 준비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방문자는 저녁에 마을로 들어온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각지를 여행하고 있는 스웨덴 육군 상사였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다고 들은 스웨덴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는 전화 번호부를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우리 집 전화 번호를 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분간 그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나는 그에게 잠시 후 다시 전화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미 두 시간이나 기다렸던 우리의 손님들은 음식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나는 주님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생생하게 꿈에서 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겪은 것과 꼭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의 문을 두드렸으나 나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시 전화할 때 그는 거기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염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그가 알려 준 번호를 돌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성탄절 전날 저녁을 우리와 함께 보내자는 나의 초청을 수락했고 나는 호텔에 있는 그를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웨덴 풍습에 따라 그는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왔으며, 정말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정말 잊혀지지 않을 성탄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먹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아들 케네스는 스웨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동안 겪었던 경험담을 그와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이유를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정에 나는 그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낯선 도시에서 초대받고 우리집을 방문하여 정성어린 환대를 받아 몹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집을 방문해 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정말 알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잠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거실에서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의 전등을 꺼서 나의 아내가 만든 레이스 달린 커어튼을 통해서 길에서 불빛이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된 파란 꼬마 전등은 하늘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흔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나는 몇 주일 전의 혼란과 힘든 일을 회상하였으며,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세주를 모실만큼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의 정적을 듣고 “나는 낯선 손님이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맞아 주었구나”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 오는 듯 하였습니다. *



1843년 성탄절 새벽 1시였습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은 20여 명의 무리가 나부 중심가에 자리잡은 맨션 하우스로 오고 있었습니다. 무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잠을 자던 방 창 밖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목도리를 했으며 장갑을 낀 이들 회원들은 예언자의 집, 창가에 섰습니다. 한 사람이 큰소리로 캐롤을 선창했습니다.

“사람들이여 깨어나 천사와 함께 찬송하세

예언자의 마지막 성탄절

앨버트 엘 조벨 이세

사랑, 기쁨, 감사로
성일을 찬양하세”(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찬송가 모음집, 엠마 스미스 편, 일리노이, 나부, 로빈슨 출판사, 1841년 12호)

그들이 다른 여섯 개의 캐롤을 불렀을 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창가에 모였습니다. 예언자를 위시해서 몇몇 사람이 이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예언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이 희열을 느꼈습니다. 집안 식구 모두가 그들의 찬송을 들으



러 일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들의 방문을 감사드렸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영국에서 개종한 눈먼 미망인 레티러쉬튼 자매와 그의 다섯 자녀, 그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그 그룹을 이룬 이웃 사람들은 추위도 있는 채 조금 떨어져 있는 하이람 형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교회의 축복사인 하이람 형제는 좀더 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이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축복하고,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천사의 무리가 방문을 했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와 그의 형 하이람에게 이 성탄절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그날 일부러 집에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맞았던 과거의 성탄절은 그날처럼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전 해의 성탄절에도 그는 성도의 비회원 이웃간의 문제로 포드 주지사를 만났었습니다. 1839년 성탄절은 워싱턴에서 있으면서 미조리 사건 때 재산을 잃은 성도들의 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 해에는 친구 몇 사람과 리버티 감옥에서 비참한 상태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예언자의 마음은 미주우리 감옥에서 7개월간 옥고를 치루며 고생하던 30세된 그의 친구 포터 록크웰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포터는 불법적으로 감금을 당하였으므로 일리노이주 성도들의 노력으로 그의 석방이 어렵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성탄절날 정오에 요셉은 나부에서 40킬로 지점에 위치한 물리 정착지에서 온 형제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폭도들의 약탈이 계속되더라도 율법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 50쌍의 부부가 요셉이 개최한 오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식사 도중 요셉은 리바이 리차즈 박사와 사라 그리피스 자매의 결혼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초청한 손님들을 둔 채로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아 요셉은 인근에 살고 있던 브리감 영 형제에게 그 일을 대신해 줄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리감 형제는 기꺼이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친절함에 있어 따를 자가 없다는 명망을 받던 38세의 예언자 요셉은 나머지 시간을 가족과 보냈음이 분명합니다. 그날 저녁 성탄절의 관습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의 집에서 저녁을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장을 한 손님들이 그날 저녁 늦게까지 멀리서 찾아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잠시나마 과거의 고초를 잊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무뢰한 한 명이 비틀거리며 예언자의 방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내쫓으려고 하였으나 그의 태도를 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 요셉의 눈질이 다른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인 포터였습니다.

록크웰이 돌아온 것입니다. 분위기는 다시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는 7개월만에 석방된 자초 지중과 폭도의 손길을 피해 돌아온 경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발에 부상을 입고 쫓기는 몸이었으므로 그곳에 오는 데만도 12일이 걸렸습니다. 그가 마침내 나부에 돌아온 것입니다.

록크웰의 무사한 귀환으로 다음해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가진 요셉의 마지막 성탄절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

굶주림, 열망, 그리고 가르침

데오 이 맥킨

본 시리즈의 둘째 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가장 훌륭한 동반자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그에게 의존하여 가르쳐야 한다.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나?”(가르치기 위한 준비, 1977년도 성도의 벗 5월호, 27페이지)
전 장에서 우리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토론한 바 있

다. 본장에서는 교사/학생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추구해야 할 학생의 입장에 관해서 다룬다. (교사/학생의 관계, 성도의 벗 1977년도 4월호, 28페이지, 도표 참조)

“효과적인 가르침이 있기 위해서는 배우는 측에 있는 학생의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보이드 케이 패커, 부지런히 가르치라, 107페이지)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과 이해를 물처럼 부어 넣어 줄 수는 없으며, 다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의 책임은 가장 적절하게 즐거운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식을 얻으려면 학생은 (1) 원해야 하며 (2) 이를 얻을 수 있는 단계를 밟아야 하며 (3)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영적인 이해력을 갈구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 이럴 때 교사인 우리



는 이들에게 자극을 줄 부수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 갈구하겠다는 마음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이유로 영적인 준비를 들 수 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때때로 선교사는 그들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 줄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우리에게는 그 일이 훨씬 쉬운 편이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체험을 한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학생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관장단에 계셨던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께서 한번은 말일성도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정의하신 적이 있다. “여러분의 학생인 교회의 청소년은 대다수가 건전한 생각과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청소년은 영적인 것에 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분명히 그것들을 알고자 합니다.……

“이들 학생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지닌 신앙을 갖고 싶어합니다. 순수하고 간결한 복음의 말씀을 원합니다.……

“이들 학생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간증을 몹시도 갈구하고 있으며…… 영의 도움으로 그들의 간증이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여러분이 바른 양식을 먹여 줄 때 영적

으로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교육의 지표, 4~6 페이지)

성신을 지닌 학생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교사나 학생, 부모나 자녀는 모두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로써……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교성 121:26)는 약속을 받고 있다.

학생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와 같은 빛과 진리의 근원은 결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우리는 가르칠 때 성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가르침을 듣는 학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니이 33:1)하는 것이 성령임을 기억해야 한다.

생명수의 샘

일반적으로 우리의 학생들은 영적인 양식을 갈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때 생명수는 그들 마음속에서 물을 올려 주는 샘과도 같게 된다.

샘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0, 13~14)

학생이 성령을 통해 배운 진리에 순종할 때 생명수의 흐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의 왕국의 비밀을 주리라. 왕국의 비밀을 간지한 자는 그 안에 생명수의 샘이 있겠고 생명수가 솟아나와 영생을 얻게되리라.”(교성 6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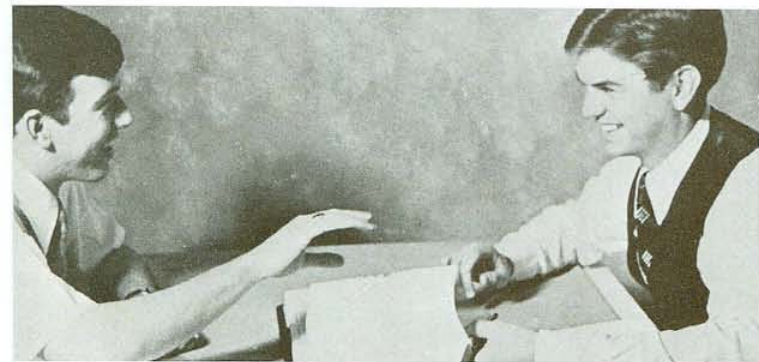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아 기쁨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비밀과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교성 42:61)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제 22:17)

강요보다는 권고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자는 생명수를 값 없이 받아야 한다. 충분히 받음은 물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참으로 그러하다. 만일 저들이 나아오면 와서 생명수를 값 없이 마시리라”(교성 10:66)라고 말씀하셨다.

교사는 학생에게 배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야,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와서 생명의 물을 가져 얻을 수 있으며, 오지 않겠다는 자를 강제함이 없으리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저마다 행한 대로 거두게 되리



라.”(엘 42 : 27)

교사가 할 일은 학생에게 권면하는 일이다. 다시 엘마의 말을 보자. “보라 주께서 자비의 손길을 펴사 모든 인간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맞으리라.

“주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내게로 오라.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먹여 주리니, 참으로 너희가 생명의 떡과 물을 거저 먹고 마시게 하리라.”(엘 5 : 33~34)

교사인 우리는 강압보다 권면을 해야 하므로 권면의 성격도 극히 중요한데, 이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지 못할 때 더욱 중요하다. 우리의 메시지는 권면과 유도의 성격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모로나이는 부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였다.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며 무엇이랴도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모로 7 : 13)

우리는 어린이에게 배움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그에게 흥미롭고 가치있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는 있다. 우리의 가르침은 음식처럼 학생의 기호에 맞아야 하며,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급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골 4 : 6)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이끌도록 한다. 그것은 불길이 마른 들에 붙어 퍼지듯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빨리 전달된다.

성령의 도움 없이 가르치려는 것은 고무 베를 이용하여 쇠편자를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령의 뜨거운 불처럼 인간의 영을 뜨겁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은 없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가르쳐서는 안된다. 그것 없이 가르치려 할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복음 교사로서 우리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만다.

주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복음에 부름을 받아 영원한 성약을 맺을 때에는 저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인간의 맛으로 인정되나니 “인간의 맛으로 불리우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보라, 그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교성 101 : 39—40)

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다. “그러나 저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모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왕국들이 저들을 이기리라.

“이는 저들이 세상에 빛으로 또 인간을 구원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음이라.

“저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으니,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교성 103 : 8—10)

영을 받아 가르칠 때 우리는 “빛”(마 5 : 14~16)과 “누룩”(눅 13 : 20—21)이 되며, 반원을 복음에 굶주리게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교사는 학생에게 이상

의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다.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듯하게”(딤후 1 : 6)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권면하여 침례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시켜야 한다.

교사 자세의 중요성

배우는 자와 진리에 대한 그의 열의에 대해 우리가 갖는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열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쉽게 약화되며, 지나치게 단순화되며, 영적으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학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돌”(마 7 : 9)을 주는 격이 되고 만다.

우리가 학생을 신뢰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 그가 하나님 면전에 살았던 시절에 지녔던 이해력을 되찾도록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우리는 그에게 생명의 빵을 주는 것이 되며, 생명수의 근원으로 그를 인도하게 된다.

학생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갖는 태도를 빠르게 분별해낸다. 우리는 언행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들은 얼마나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곧 발견한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를 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느끼며, 이것이 결핍된 것도 쉽게 느낀다. 복음에 대한 열의에 불을 당기는 역할도 교사의 책임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첩자를 보내 이스라엘 자녀가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한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나 백성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민 13 : 27~28)고 보고하였다.

열 두 명의 첩자 중 열 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31절)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님이 명하신 과업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이 약한 결과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33절)고 보고를 끝냈다.

열두 명 중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성실한 태도를 지녔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30절)고 한 사람은 갈렙이었다. 두 사람은 “여호와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 14 : 9)고 하며 보고를 마쳤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될 사람일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실한 태도로 주님의 지명을 받아 들였다. 니파이와 같이 그들 역시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 : 7)

주님은 교사인 우리가 가르치도록, 학생인 반원이 배우도록 도울 것이다.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어렸을 때 즐겨 놀던 놀이로 “깡통 차기”가 있었다. 우리는 땅거미가 질 저녁 무렵이면 숨을 장소가 있는 마당이나 과수원 뜰에서 이 놀이를 하곤 하였다. 술래가 깡통을 밟고 서서 눈을 감고 백까지 세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숨는 것이다. 술래는 백을 셀 후에 큰 소리로 “자, 꼭 숨지 않은 사람은 잡힌다”라고 외친다. 이렇게 해서 이 놀이는 시작된다.

흥미를 잃은 반원들과 씨름을 하는 교사를 보거나 어린 자녀에게 적절하지 못한 교훈을 강요하려는 부모들을 볼 때 나는 가르침이란 위에서 말한 놀이와도 흡사하다고 생각해 본다.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입장에 있는

주: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의 저서 “부지런히 가르치라”에서 발췌, 1975년 판 메저렛 출판사 저자의 승인을 받아 게재함.

학생의 준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 년 전 신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반원 중 한 명이 등교 길에 교통 사고로 죽은 적이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학생들은 놀라움과 슬픔에 싸여 하루를 보냈다. 전에 보지 못한 진지한 자세로 학생들은 그날의 수업에 임했다. 나는 교회사 중에서도 개척사를 가르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그것을 가르치기에 알맞은 날이 아니었다. 그날 학생들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죽은 후의 삶에 대한 강의를 받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훌륭한 교사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반원이 준비되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다. 우리가 어린이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많은 공과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너무 많이 너무 일찍

학교 성교육 과정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과 위험스러운 일은 교사가 이상에서 말한 중요한 가르침의 원리를 무시하는 점이다. 교사는 학생이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모든 것을 말해 버리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영적, 정서적, 도덕적 안정성을 망쳐 버리고 만다. 교사는 반원을 큰 위험의 구덩이로 몰고 간다. 모든 것이 때에 맞게 행해져야 하며, 만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훌륭한 교사나 현명한 부모는 그러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활동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도덕의 기본 원리를 배울 반원의 성숙도와 준비성을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 너무 어려서 기본 원리를 배우게 되면 의미가 없게 되기 쉽다. 도덕을 가르치는 문제는 필요하긴 하나 반드시 반원의 성숙도와 수용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례로, 너무 어려서 육체적인 욕망의 욕구가 무엇인지 몰르는 어린이에게는 이 문제를 나이를 먹은 어린이에



게와는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성숙한 토론을 다룰 때가 오게 되며, 이때에도 경건성을 잃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

학생에게 소개되는 내용은 명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학생들의 성숙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표나 그림이나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르침을 적절히 맞출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이고, 반원의 준비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내용을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지금부터

어린이를 가르칠 때 준비성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다. 자녀를 둔 부모는 언제 그들이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를 항상 주시할 수 있다. 질문이나 행동에서, 또는 생활 경험에서 그들은 때가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준비되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가르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내와 나는 부모로서 어린 자녀의 질문을 결코 소홀히 해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철칙으로 삼아 왔다.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닌진, 또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자녀의 질문에 응해 왔다. 그것은 질문이란 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배고플 때 먹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호를 육체적인 배고픔에 비교하여 봄으로써 무엇을 먹인다는 것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성장기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배고파할 때

무엇인가를 먹이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 왔다. 이것은 이상스럽고 무모한 습관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방과 후에는 늘 간단한 음료수와 과자가 준비되었다. 4시 반이나 5시 경에는 이것을 들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다. 그들의 혈당의 농도가 매우 낮아졌다. 그들은 지쳐 있다. 집에 돌아올 때는 배가 고파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저녁 식사 전에 그들에게 과자와 밀크나 빵을 주어 배고픔을 면하게 하였다. 이런 경우 식욕이 떨어져 저녁 식사는 정상으로 들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이 몹시 배가 고파 있을 때 저녁 식사를 주는 것이다. 그들은 마음껏 먹는다. 그런 다음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과자를 듣게 했다.

충분히 식사한 후 각자 자기의 할 일을 하거나 조용히 공부하거나 평화롭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생긴다. 아버지는 퇴근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흔히 자녀들은 이때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후에 간단한 다과를 함께 들면 마치 매일 가정의 밤을 갖는 기분이 된다.

이런 방법은 자녀가 먹을 준비가 되었을 때 먹었으므로 가정에 평안과 안정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이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때로 우리는 배움에 대한 열의를 망치게 하는 즉흥적인 대답을 주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주지 못하는 때가 있다. (17장, 107—108, 114~116 페이지에서 발췌함) *



1977년도 성도의 벗 색인

7

가르치기 위한 준비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26페이지.

가르침

가르치기 위한 준비,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26페이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977년 12월호, 28페이지.

그리스도의 교수법,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26페이지.

그의 양을 먹임,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34페이지.

삶주립, 열망, 그리고 가르침,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12월호, 25페이지.

모법의 힘,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28페이지; 성도의 벗, 1969년 10월호.

반원을 이해함,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35페이지.

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27페이지.

사랑이란 이해하고 돕는 것,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32페이지.

영향력있는 교사, 본 제이 페더스토운,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03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 103페이지.

유화 원리를 이용하여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35페이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성도의 벗, 1977년 12월호, 28페이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면을 쓴 너구리

머리 티 포팅클,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21페이지.

가서 행하라

엘 엘튼 테너,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2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6페이지.

가정의 밤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19페이지, 칠드런스 프렌드, 1965년 8월호.

비회원을 위하여 가정의 밤을 가짐,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7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가족

어느 실업가와 병커 감독, 윌리암 하틀리,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8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1월호, 10페이지.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3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41페이지.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대화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침, 스티븐 알파 샌드라 코우비, 성도의 벗, 1977년 12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월호, 58페이지.

가족과 더불어

아더 알 배셋,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8페이지.

가족 기록

내가 그리던 어머니, 원더 웨스트 배저,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우리 왕국의 기록, 지미 비 파커,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6년 8월호, 22페이지.

영원한 일... 위험을 무릅쓰리요,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가족 예비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바바라 비 스미스,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2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1페이지.

가족 조직

조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라이반 더 플랫트,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3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16페이지.

각 자매가 다 중요함

바바라 비 스미스,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3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6페이지.

간결함

간결함이 주는 힘,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6페이지.

간결함이 주는 힘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6페이지.

간증

간결함이 주는 힘,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엔사인, 1977년 5월호, 66페이지.

감사, 리차드 지 스콧트,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73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 리그랜드 리차드,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64페이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딘 엘라슨,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페이지.

나와 구세주와의 관계,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5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8페이지.

다시는 그와 같이 되지 못하리, 제이 리차드 클라크,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0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9페이지.

복음의 효력, 지 호머 더럼,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1페이지.

살아 계신 예언자, 텍스 디 피네가,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6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67페이지.

선교 사업의 정신, 칼로스 이 애시,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1페이지.

수많은 증거, 제임즈 엠 패러모어,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2페이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로렌 시 던, 성도의 벗, 10월호, 3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0페이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에스 델 위스 영,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0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2페이지.

이 길밖에 없지 않아요, 조이스 비 베일리,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년 11월호, 14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8월호, 2페이지.

감독과 장로 점원회 회장간의 관계에 관한 지시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29페이지.

감독의 참고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 감독의 참고,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1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2페이지.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라,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83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9페이지.

주님의 참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봄,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8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9페이지.

감사

감사하는 마음,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77년 12월호, 1페이지; 고용인 성탄절 영적 모임, 1976년 12월호.

리차드 지 스콧트,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73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0페이지.

개뿔, 메이블 존스

암몬,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22페이지; 프렌드, 1971년 9월호, 16페이지.

앰블레크,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23페이지; 칠드런스 프렌드, 1963년 1월호, 19페이지.

개인 역사 기록

개인 역사 기록 작성,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스페인어로 들리는 음성, 루이스 에스피노자,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25페이지

지 ; 앤사인 1977년 1월호.

할아버지의 선물, 브르스 라이만,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11페이지 ; 앤사인 1977년 1월호.

개인 역사 기록 작성

보이드 케이 페커,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8페이지 ; 앤사인, 1977년 1월호.

개종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껴요, 에어마 디 맥켄너,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8페이지. 개종의 복음, 하트만 렉터 이세,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97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1월호, 97페이지.

나를 개종시킨 시누이의 간증, 쥬와 슬로랙,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16페이지.

지금은 나를 따르거라, 캐드린 입슨,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30페이지 ; 앤사인, 1977년 11월호.

펜팔을 통한 개종, 헬렌 패튼,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16페이지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2년 4월호, 235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맛, 에어만 브락쿠,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21페이지 ; 앤사인, 1976년 8월호, 36페이지.

한 사람으로 온 나라 백성이, 에밀리오 오 버젤리,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25페이지.

개종의 복음

하트만 렉터 이세,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97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1월호, 97페이지.

개척자

아직도 개척자는 필요합니다,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1페이지 ; 앤사인 1976년 7월호, 2페이지.

이 길밖에 없지 않아요, 조이스 비 베일리,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18페이지 ; 프렌드, 1976년 11월호, 14페이지.

결심

어느 길로 따라 가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1977년 2월호, 47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1월호, 51페이지.

결혼

1,113쌍이 신전 결혼했으나 영생은?, 존 케이 에드먼즈,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28페이지 ; 앤사인, 1976년 7월호, 69페이지.

경건

경건, 친구가 친구에게, 본 제이 페더스 토운,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14페이지 ; 프렌드, 1976년 9월호, 30페이지.

안식일 상자,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슨,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18페이지 ; 프렌드, 1976년 9월호, 14페이지.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1페이지 ; 처치 뉴스 1976년 9월 18일, 8페이지

경고

대회의 목적,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78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1월호, 80페이지.

경기

인생이라는 경기,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31페이지 ; 뉴 이라, 1976년 10월호, 10페이지.

경전

경전을 상고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1페이지.

경전을 연구하라, 헨리 더 테일러,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59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1월호, 62페이지.

경전 연구

사색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수잔 힐,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22페이지 ; 뉴 이라, 1976년 5월호, 49페이지.

경전을 상고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1페이지.

경전을 연구하라

헨리 더 테일러,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59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1월호, 62페이지.

계명

새로운 계명, 브르스 알 맥쿱키,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5페이지 ; 앤사인, 1976년 8월호, 7페이지.

계보

조직은 감정에서 시작된다, 하이만 디 폴랫트,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3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0월호, 16페이지.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리그랜드 리차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3페이지 ; 앤사인, 1977년 5월호, 62페이지.

계시

새로운 계명, 브르스 알 맥쿱키,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5페이지 ; 앤사인, 1976년 8월호, 7페이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로렌 시 던,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31페이지 ; 앤사인 1977년 5월호.

계시 : 예언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80페이지 ; 앤사인, 1977년 5월호, 76페이지.

고결한 성품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14페이지 ; 앤사인, 1977년 5월호, 14페이지.

고고학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마야 문명, 제임스 에스 팩커,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6페이지 ; 앤사인, 1972년 9월호, 50페이지.

고대 십자가 처형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6페이지 ; 앤사인, 1976년 7월호, 32페이지.

고메즈, 폴 엔리크

주님의 도구,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17페이지 ; 프렌드, 1976년 9월호, 35페이지.

고오츠, 클로디아 티

어머니로서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10페이지 ; 앤사

인, 1976년 3월호, 23페이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마틴 제이 굿닉,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20페이지.

교회 교리

질 의 응답, 러셀 엠 넬슨,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21페이지 ; 앤사인, 1973년 9월호, 23페이지.

교회 복지 사업의 목적

매리온 지 톨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97페이지 ; 앤사인, 1977년 5월호, 92페이지.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윌포드 지 에드링,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9페이지 ; 앤사인, 1977년 5월호, 10페이지.

교회 재판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로버트 엘 심슨,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27페이지 ; 뉴 이라, 1977년 1월호, 4페이지.

구르, 게이른 에스

자바의 작은 마을에서 본 신앙,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26페이지 ; 앤사인, 1976년 7월호, 75페이지.

구세주의 방법대로 인도함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1페이지.

삶주립, 열망, 그리고 가르침

베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12월호, 25페이지.

굿닉, 마틴 제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마틴 제이 굿닉,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20페이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페커,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29페이지.

그들은 청소년이었읍니다

루스 에이치 핑크,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14페이지.

그로버그, 존 에이치

빛이 보입니다,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40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1월호, 108페이지.

그리스도가 받은 시침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7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1월호, 17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

리그랜드 리차즈,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61페이지 ; 앤사인, 1976년 11월호, 64페이지.

그리스도의 교수법

베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26페이지.

그리스도의 빛

매리온 지 톨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42페이지 ; 앤사인 1977년 5월호, 43페이지.

그의 양을 먹임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34페이지.

기도

어느 실업가와 병커 감독, 윌리엄 하틀리,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8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1월호, 10페이지. 에즈라 테프트 벤슨,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2페이지.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침,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월호, 58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4월호, 2페이지.

기록 작성

여러분 자신의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천사가 인용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24페이지; 뉴 이라 1975년 10월호, 4페이지.

기번즈, 프랜시스 엠

1976년도 통계 보고,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8페이지.

꿈속에서 물문경을 읽은 나의 할머니

루셋타 마리아 팔러 앳킨슨,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25페이지.



나는 감독과의 개인 접견 준비를 어떻게 하나?

호텐스 에이치 차일드,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25페이지.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20페이지.

나는 수감자들을 가르쳤다

자네트 밀라,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딘 엘 라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페이지.

나를 개종시킨 시누이의 간증

쥬와 슬로페,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6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나와 구세주와의 관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8페이지.

나의 선교사 일지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24페이지; 프렌드, 1977년 6월호, 37페이지.

나이먼, 몬트 에스

물문경 가장 정확한 책,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11페이지.

내가 그리던 어머니

원더 웨스트 배저, 성도의 빛, 1977년 5

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내가 정한 방식대로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3페이지.

내 생애 최고의 것

로버트 이 웰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4페이지.

낙담

한 번의 노력,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69페이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엘 톰 페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0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9페이지.

넬슨, 러셀 엠

질의 응답,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3년 9월호, 23페이지.

누구나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7년 10월호.

니메어, 린

2,000여 명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2페이지; 엔사인, 1977년 2월호, 56페이지.

니파이

모든 일에 다 능통한 니파이, 엘런 이 버진,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6년 9월호, 64페이지.

니파이가 레이벤을 죽인 것을 어떻게 비회원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프리 알 홀랜드,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28페이지.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77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3페이지.

다시는 그와 같이 되지 못하리

제이 리처드 클라크 감독,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9페이지.

단합

위대한 형제애,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6페이지.

당신의 종교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조지 디 더란트,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대관장단의 성탄절 추억

스펜서 더블류 김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0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2페이지.

대회의 목적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8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80페이지.

더란트, 조지 디

당신의 종교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더럼, 지 호머

복음의 효력,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1페이지.

더 오래 일할 준비를 갖춘 젊은이

엔 엘돈 태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3페이지.

더욱 큰 기쁨

매리온 디 행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3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31페이지.

던, 로렌 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0페이지.

질의 응답,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2페이지; 뉴 이라, 1975년 9월호.

던, 폴 에이치

따라 행하십시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4페이지.

인생이라는 경기,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31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0월호, 10페이지.

한 번의 노력,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69페이지.

데릭, 로이든 지

팔복에 관한 산상 수훈과 우리의 온전함,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7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7페이지.

도덕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엘 톰 페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0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9페이지.

두려움 -

물 위의 시장, 웨리 존슨,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5년 4월호, 17페이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바바라 비 스미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1페이지.

등불의 기적

버너딘 비터,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25페이지.

디오거, 제이콥

선교사 정신,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6페이지.

디플레트 라이만

조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3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16페이지.

따라 행하시오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4페이지.

따르는 자의 본분

로저 메릴,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5페이지.

말속에 사는 사람

서리 리,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5년 11월호, 14페이지.

근

라슨, 딘 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페이지.

레인, 엘리자베스

호우프만 할머니,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17페이지.

렉터, 하트만 이세

개종의 복음,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9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7페이지.

로버츠, 레어드

회원 선교사,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로즈, 톰 지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도의 빛, 1월호, 6페이지.

리, 서리

땅속에 사는 사람,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5년 11월호, 14페이지.

리들, 촌시 시

신권에 관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6년 4월호, 5페이지.

리아호나

우리의 리아호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7페이지.

리차즈, 리그랜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6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64페이지.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3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2페이지.

리차즈, 프랭클린 디

선교사로서 우리 걸음의 폭을 넓히자,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9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9페이지.

성도를 완전케 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3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5페이지.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4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리하이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1부: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6년 9월호, 32페이지.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2부: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34페이지.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3부: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57페이지.

예언자요 축복사요 가장인 리하이, 마샬 알 크레이크,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6년 9월호, 58페이지.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린 엘과 호프 에이 힐튼 제1부: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6년 9월호, 32페이지.

제2부: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34페이지.

제3부: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2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57페이지.

리하이의 여행

리하이의 여행로를 따라, 제랄드 실버,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15페이지; 처치 뉴스, 1976년 9월 4호, 7페이지.

리하이의 여행로를 따라

제랄드 실버,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15페이지; 처치 뉴스, 1976년 9월 4호, 7페이지.

리하이의 일곱 혈통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27페이지.

□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를 통하여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

제이 리차드 클라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89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85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7연차 대회 보고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페이지.

매드슨, 수잔 애리튼

부도를 공경한 예언자,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20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42페이지.

매리온 지 롬니

교회 복지 사업의 목적,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97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92페이지.

그리스도의 빛,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2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3페이지.

내가 정한 방식대로,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3페이지.

대관장단의 성탄절 추억,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0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2페이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6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0페이지.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6

년 11월호, 36페이지.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6년 4월호, 10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8월호, 2페이지.

한 줄기 밝은 빛,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1페이지.

매일 사랑하는 생활

에이치 버크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7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8페이지.

매일을 성탄절처럼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6페이지.

맥스웰, 닐 에이

비록 내가 연약하나,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페이지.

맥켄너, 에어마 디

이제 나도 백함받고 가지있는 존재임을 느껴요,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8페이지.

맥콩키, 브루스 알

새로운 계명,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6년 8월호, 7페이지.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2페이지.

주님 안에서 죽은 자,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6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6페이지.

맥킨, 데오 이

가르치기 위한 준비,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26페이지.

꿈주림, 열망 그리고 가르침,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5페이지.

그리스도의 교수법,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27페이지.

그의 양을 먹임,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34페이지.

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27페이지.

사랑이란 이해하고 듣는 것,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32페이지.

메릴, 로저

따르는 자의 본분,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5페이지.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음

고든 비 힝클리,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9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5페이지.

모리슨, 데일 시

내세의 고향, 영의 세계,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3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47페이지.

모범

모범의 힘, 덴버트 엘 스테이플리,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30페이지.

부도의 책임, 오 레슬리 스톤,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5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60페이지.

어느 실업가와 벙커 감독, 윌리엄 하틀
리,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8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1월호, 10페이지.

모범의 힘

펠버트 엘 스테이플리, 성도의 벗, 1977
년 6월호, 28페이지; 성도의 벗, 1969년
10월호.

목표

어느 길로 따라 가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47페이
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1페이지.

몬슨, 토마스 에스

어느 길로 따라 가렵니까?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47페이지; 엔사인, 1976
년 11월호, 51페이지.

여리고로 가는 길, 성도의 벗, 1977년 10
월호, 74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1페이지.

물문경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린 엠과 호프
에이 힐튼(제1, 2, 3부), 성도의 벗, 1977
년 7월호, 2페이지; 1977년 8월호, 11페
이지; 1977년 9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6년 9월호, 32페이지; 1976년 10월호,
34페이지; 1976년 10월호, 57페이지.

리하이의 여행로를 따라, 제랄드 실버,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15페이지; 처
치 뉴스, 1976년 9월 4일, 7페이지.

문물경을 선교 지역으로 보냄;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시작이 어려우면, 애니타 밀러,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2년 12월호, 71페이지.

암몬, 메이블 존스 개붓,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23페이지; 프렌드, 1971
년 9월호, 16페이지.

엠올레크, 메이블 존스 개붓,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23페이지; 프렌드, 1963
년 1월호, 19페이지.

물문경, 가장 정확한 책

몬트 에스 나이먼,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11페이지.

물문경 연대표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12페이지.

물문경을 선교 지역으로 보냄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8페이지; 엔
사인, 1977년 11월호.

물 위의 시장

셰리 존슨,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18
페이지; 프렌드, 1975년 4월호, 17페이
지.

믿음과 행함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엘 톨 케
리,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엔사인,
1977년 5월호, 59페이지.

밀러, 자네트

나는 수감자들을 가르쳤다,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7

년 11월호.

밀러, 애니타

시작이 어려우면, 성도의 벗, 1977년 7
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2년 12월호,
71페이지.

님

바버라이, 엘머 제이

엘마서 32장은 제 성격을 변화시켰습니
다,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22페이지.

바울

사도 바울의 가르침, 펠버트 엘 스테이
플리,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91페이
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1페이지.

반원을 이해함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977년 7
월호, 35페이지.

반조, 캐드린 에이치

안식일 상자,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19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14페
이지.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구해드리죠”, 지
브이 스펜서,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26페이지; 포도원의 농부, 솔트레이크시
티: 줘버나일 인스트라터, 1884년, 23페
이지.

배셋, 아더 알

가족과 더불어, 성도의 벗, 1977년 1월
호, 8페이지.

배저, 원더 웨스트

내가 그리던 어머니,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벨라드, 러셀 엠 이세

선교사를 만듦, 성도의 벗, 1977년 2월
호, 8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6페이지.

버젤리, 에밀리오 오

한 사람으로 온 나라 백성이,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25페이지.

버긴, 앨런 이

모든 일에 다 능통한 니파이,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6
년 9월호, 64페이지.

버튼, 디어더어 엠

숨기지 못하리라, 성도의 벗, 1977년 10
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8페이지.

베넷, 윌리엄 에이치

완전은 우리의 목표,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
호, 29페이지.

베드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메리온 지
롭니,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67페이
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0페이지.

베렛, 윌리엄 이

요셉 스미스—그의 다섯 가지 지도자적 자
질,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26페이지.

베일리, 조이스 비

이 걸밖에 없지 않아요!,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
년 11월호, 14페이지.

벤슨, 에즈라 태프트

기도,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33페
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2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우리의 은사와 유산,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22페이지; 뉴
이라, 1975년 5월호, 16페이지.

주님의 창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봄,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8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82페이지.

변형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데이비드 비 헤
이트,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페이
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페이지.

병고침

이천여 명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있단다,
린 니메이, 성도의 벗, 1977년 12월호,
12페이지; 엔사인, 1977년 2월호, 56페
이지.

주님의 도구, 폴 엘릭 고메즈, 1977년
7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보고와 목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페이지.

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테오 이 맥킨,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27페이지.

복음의 효력

지 호머 더럽, 성도의 벗, 1977년 10월
호, 40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1
페이지.

복지

가서 행하라, 엔 엘돈 테너,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25페이지; 엔사인, 1976
년 11월호, 126페이지.

교회 복지 사업의 목적, 메리온 지롭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97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92페이지.

기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7
년 5월호, 32페이지.

내가 정한 방식대로, 메리온 지롭니, 성
도의 벗, 1977년 2월호, 122페이지; 엔
사인, 1976년 11월호, 123페이지.

복지 사업에 있어서 스테이크 감독 평의
회의 기능, 엘 톨 케리, 성도의 벗, 1977
년 10월호, 92페이지; 엔사인, 1977년 5
월호, 88페이지.

서로 사랑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
도의 벗, 1977년 2월호, 126페이지; 엔
사인, 1976년 11월호, 127페이지.

주님의 창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엔사인, 1977년 5월호, 82페이
지.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라, 빅터 엘 브라
운,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83페이
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9페이지.

행동에 옮기라는 권고, 바바라 비 스미
스,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95페이
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90페이지.

복지 사업

복지 사업의 원리, 본 제이 페더스토운,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8페이지.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 감독의 창고;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 112페이지.

복지 사업 계획

생산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함, 에이치 버크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4페이지.

복지 사업에 있어서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의 기능

엘 톰 페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92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88페이지.

복지의 원리

본 제이 페더스토운,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8페이지.

봉사

내가 정한 방식대로,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3페이지.

서로 사랑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6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7페이지.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할지 전혀 모릅니다, 제이콥 디오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6페이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에스 딜위스 영,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2페이지.

주님의 보좌 조지, 로버트 엘 십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0페이지; 성도의 빛, 1976년 11월호, 100페이지.

부모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3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41페이지.

부모를 공경한 예언자

수잔 애링튼 매드슨,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20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42페이지.

부모 사랑

부모를 공경한 예언자, 수잔 애링튼 매드슨,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20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42페이지.

부모의 책임

오 메슬리 스토운,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60페이지.

서로 사랑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7페이지.

부쉬, 에프 엔지오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3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

호, 41페이지.

부활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6년 4월호, 10페이지.

위대한 잠재 능력, 스펜서 더블류 킴블, 1977년 10월호, 4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9페이지.

분홍색 부활절 드레스

도라 디 프렉크,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6년 4월호, 41페이지.

브라운, 빅터 엘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 감독의 창고,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2페이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라,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7페이지.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라, 성도의 빛, 10월호, 83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9페이지.

브라이언 케이 켈리

사우니아투: 준비하는 장소,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8페이지.

브락크, 에어만

“하나님의 사랑의 맛”,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6년 8월호, 36페이지.

브래드포드, 윌리엄 알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7년 6월호, 6페이지.

브룩뱅크, 버나드 피

살아 계신 그리스도,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6페이지.

블록삼, 브렌다

요셉,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18페이지.

비록 내가 연약하나

닐 에이 맥스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페이지.

비숍, 브루스 라이만

할아버지의 선물,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비티, 버너딘

등불의 기적,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25페이지.

비회원을 위하여 가정의 밤을 가짐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7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빛이 보입니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4페이지.

入

사도 바울의 가르침

멜버트 엘 스페이플리,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9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1페이지.

사랑

더욱 큰 기쁨, 매리온 디 행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3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31페이지.

등불의 기적, 버너딘 비티,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25페이지.

매일 사랑하는 생활, 에이치 버크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7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8페이지.

이제 나도 택함받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껴요, 에어마 디 맥켄너,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8페이지.

사랑이란 이해하고 돕는 것

데오 이 맥킨,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32페이지.

사십일간의 성역

숨기지 못하리라, 더어도어 엠 버튼,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8페이지.

사우니아투: 준비하는 장소

브라이언 케이 켈리,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8페이지.

사우드 다코타로 이민은 한 스웨덴인과 물 문경

제럴드 이 존즈,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23페이지.

사회 사업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를 통하여 필요 사항을 충족시킴, 제이 리차드 클라크, 1977년 10월호 성도의 빛, 89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85페이지.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라,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83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9페이지.

살아 계신 그리스도

버나드 피 브룩뱅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6페이지.

살아 계신 예언자

렉스 더 피네가,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6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67페이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라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7페이지

상호부조회

각 자매가 다 중요함,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6페이지.

상호부조회의 축복과 잠재력,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2페이지.

왜 모든 자매에게 상호부조회가 필요한가,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73페이지.

행동에 옮기라는 권고, 바바라 비스미스,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9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90페이지.

삼호 부조회의 축복과 잠재력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2페이지.

새로운 계명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6년 8월호, 7페이지.

생산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에이치 버크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4페이지.

서로 사랑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6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7페이지.

석양
울리지 않는 종, 헤이즐 엠 토마스,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5년 6월호, 3페이지.

선견자 요셉
고든 비 힐클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4페이지.

선교사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구해 드리죠”, 시브이 스펜서,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6페이지; 포도원 농부, 솔트레이크시티: 주버나일 인스트라터, 1884년 23페이지.

자바의 작은 마을에서 본 신앙, 게이른 에스 구르,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75페이지.

펜팔을 통한 개종,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6페이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2년 4월호, 235페이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5페이지.

선교사로서 우리 걸음의 폭을 넓히자
프랭클린 디 리차즈,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9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9페이지.

선교사를 만듦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6페이지.

선교 사업
에이 디어더어 터틀,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2페이지.

선교 사업
나는 수감자들을 가르쳤다, 자베트 밀라,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누구나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7년 10월호.

당신의 종교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조지 더 더란트,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매일을 성탄절처럼,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6페이지.

선교사로서 우리 걸음의 폭을 넓히자, 프랭클린 디 리차즈,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9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9페이지.

선교사를 만듦, 러셀 엠 벨라드 이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6페이지.

선교 사업, 에이 디어더어 터틀,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2페이지.

선교 사업은 가정에서, 어네스트 에버하드 이세,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선교 사업의 정신, 칼로스 이 애시,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1페이지.

선교사 정신, 제이콥 디오거,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손쉬운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7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숨기지 못하리라, 디어더어 엠 바튼,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8페이지.

어느 실업가와 벙거 감독, 윌리엄 하틀리,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8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1월호, 10페이지.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제이콥 디오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6페이지.

영원한 가족,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0페이지.

인생이라는 경기,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31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0월호, 10페이지.

저마다 책임이 있느니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칠주를 내려치라, 비 로이드 포엘만,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21페이지; 뉴 이라, 1975년 10월호, 26페이지.

친구를 교회로 인도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스펜서 제이 콘더,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티셔츠를 입은 꼬마 선교사,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36페이지.

선교 사업은 가정에서
어네스트 에버하드 이세,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7

년 11월호.

선교 사업의 정신
칼로스 이 애시,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1페이지.

선교사 정신
제이콥 디오거,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선교사 준비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9페이지.

선교사를 만듦, 러셀 엠 벨라드 이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6페이지.

성경을 가르쳐 주는 물문경
존 에프 하이엔라이히,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25페이지.

성도를 완전케 함
프랭클린 디 리차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3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5페이지.

성도의 빛
성도의 빛을 선교 지역으로 보냄,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성신
성탄절에 찾아온 손님, 어니스트 엔 에크로프,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2페이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로렌 시 던,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0페이지.

성약
우리는 성약을 맺는 백성, 조셉 앤더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9페이지.

성찬
성찬에 대한 명상,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4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4페이지.

질 의 응답, 로렌 시 던,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1페이지; 뉴 이라, 1975년 9월호.

성찬에 대한 명상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4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4페이지.

성탄절
대관장단의 성탄절 추억,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0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2페이지.

등불의 기적, 머너딘 비티,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25페이지.

성탄절에 찾아온 손님, 어니스트 엔 에크로프,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2페이지.

예언자의 마지막 성탄절, 엘버트 엘 조벨 이세,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3

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2월호, 13페이지.

성탄절에 찾아온 손님

어니스트 엔 에크로프,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2페이지.

순수한 선교 방법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7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수련 장로에게 드리는 말씀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4페이지.

수많은 증거

제임스 엠 패러모어,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2페이지.

순종

따라 행하시오,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4페이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라라.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7페이지. 인간을 위한 사업, 스펜서 더블류 김블, 1977년 2월호, 11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0페이지.

인간의 참된 맛,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8페이지.

숨기지 못하리라

더어더어 엠 버튼,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8페이지.

스미스, 바바라 비

각 자매가 다 중요함,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6페이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1페이지.

행동에 옮기라는 권고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9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90페이지.

스미스, 요셉

평온한 마음,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13페이지.

스미스, 요셉

부모를 공경한 예언자, 수잔 애링톤 매드슨,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20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42페이지. 선전자 요셉, 고른 비 핑클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4페이지.

예언자의 마지막 성탄절, 엘버트 엘 조벨 이세;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3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2월호, 13페이지.

스미스 조셉 에프

용감했던 순간, 키이트 크리스티슨,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28페이지.

스콧, 리차드 지

감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73페이지.

스테인크 감독 평의회

복지 사업에 있어서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기증, 엘 톨 페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92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88페이지.

스테인플리, 델버트 엘

모범의 힘,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28페이지; 성도의 빛, 1969년 10월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9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1페이지.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성,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엔사인, 1977년 5월호, 21페이지.

스토운, 오 레슬리

부모의 책임,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7페이지.

스티븐스, 존 로이드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마야 문명, 제임즈 에스 패커,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2년 9월호, 50페이지.

스페인어로 들리는 음성

루이스 에스피노자,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25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스펜서, 시 브이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구해 드리죠”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7페이지; 포도원의 품속꾼, 솔트레이크시티 : 청소년 인스트라터, 1884년, 23페이지.

슬로백, 쥬와

나를 개종시킨 시누이의 간증,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6페이지.

시작이 어려우면

애니타 밀러,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3페이지.

시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6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7페이지.

더 오래 일할 준비를 갖춘 젊은이, 엔 엘 돈 태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 73페이지.

식품 저장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바바라 비 스미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1페이지.

신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29페이지.

신권

수련 장로에게 드리는 말씀,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4페이지. 신권에 관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존

시 시 리들,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6년 4월호, 5페이지.

용감했던 순간들, 키이트 크리스티슨,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20페이지.

우리는 성약을 맺는 백성, 조셉 앤더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9페이지.

2,000명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린 니메어,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2페이지; 엔사인, 1977년 2월호, 56페이지.

자바의 작은 마을에서 본 신앙, 게이른 에스 구르,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75페이지.

신권의 권능

위대한 잠재 능력, 스펜서 더블류 김블,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9페이지.

신앙

빛이 보입니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4페이지.

용감했던 순간들, 키이트 크리스티슨,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20페이지.

용감했던 순간들, 키이트 크리스티슨,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28페이지.

인간을 위한 사업, 스펜서 더블류 김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주님의 도구, 폴 엘릭 고메즈,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35페이지.

2,000여 명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린 니메어,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2페이지; 엔사인, 1977년 2월호, 56페이지.

신회

살아 계신 그리스도, 버나드 피 브룩뱅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6페이지.

실, 스티어링 더블류

훌륭한 죽음,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6페이지.

실버, 제랄드

리하이의 여행로를 따라: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처치 뉴스, 1976년 9월 4일자, 7페이지.

실업

복지의 원리, 본 제이 케더스토운,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8페이지.

심슨, 로버트 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27페이지; 뉴 이라, 1977년 1월호, 4페이지.

주님의 보조 조직, 성도의 빛, 1977년 2

월호, 10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0페이지.

십관

주님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심,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페이지.

십자가 처형

고대의 십자가 처형,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32페이지.



아무 일도 안할 수 없습니다

블레인 알 워든,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14페이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존시 시리틀,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6년 4월호, 5페이지.

안식일

안식일 상자,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슨과 캐드린 에이치 반조,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9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14페이지.

주님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심,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페이지.

얇은

메이블 존스 개붓,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23페이지; 프렌드, 1971년 9월호, 16페이지.

압스트롱, 낸시 엠

한 걸음 앞으로,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2페이지.

애쉬튼, 마빈 제이

간결함이 주는 힘,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6페이지.

합당한 자기 관리,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4페이지.

애시, 칼로스 이

선교 사업의 정신,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1페이지.

앤더슨, 리차드 로이드

고대 십자가 처형,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32페이지.

앤더슨, 조셉

우리는 성약을 맺는 백성,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9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32페이지.

앨마

엠올레크, 메이블 존스 개붓,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23페이지; 프렌드, 1963년 1월호, 19페이지.

앨마서 32장은 제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엘머 제이 바버라이,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22페이지.

앨올레크

메이블 존스 개붓,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23페이지; 프렌드, 1963년 1월호, 19페이지.

엡킨슨, 루셋타 마리아 말러

꿈속에서 물문경을 읽은 나의 할머니,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25페이지.

약속

따라 행하시오,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4페이지.

양심

우리의 리아호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7페이지.

어느 길로 따라 가겠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1페이지.

어느 실업가와 벙커 감독

윌리엄 하틀리,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8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1월호, 10페이지.

어떻게 간증을 전할 것인가

스티븐 알 코우비,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4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어머니

어머니로서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 클로디아 티 고오츠,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23페이지.

어머니로서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

클로디아 티 고오츠,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23페이지.

에드링, 윌포드 지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0페이지.

에반트, 게리

이웃의 정을 돈독하게 하시는 예언자,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9페이지; 처치 뉴스, 1976년 11월호, 27페이지, 5페이지.

에드먼즈, 존 케이

1, 113쌍이 신전 결혼을 했으나 영생은?,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69페이지.

에버하드, 어네스트, 이세

선교 사업은 가정에서,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에스피노자, 루이스

스페인어로 들리는 음성,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25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에크로프, 어니스트 엔

성탄절에 찾아온 손님, 성도의 빛, 1977

년 12월호, 22페이지.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제이콥 디오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2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56페이지.

여러분 자신의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여리고로 가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74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1페이지.

여성

각 자매가 다 중요함, 바바라 비 스미스,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6페이지.

어머니로서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 클로디아 티 고오츠;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23페이지.

왜 모든 자매에게 상호부조회가 필요한가?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73페이지.

영, 에스 딜웬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2페이지.

영원한 가족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0페이지.

영의 세계

내세의 고향, 영의 세계, 데일 시 모리슨,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3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 47페이지.

영의 인도

개종의 복음, 하트만 렉터 이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9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7페이지.

영적인 은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매리온 지롭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6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0페이지.

영향력있는 교사

본 제이 페더스토운,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3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고대 십자가의 처형, 리차드 앤더슨,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32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 리그랜드 리차드,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6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64페이지.

나와 구세주와의 관계,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8페이지.

살아 계신 그리스도, 버나드 피 브룩뱅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6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우리의 은사와 유산, 에드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22페이지; 뉴 이라, 1975년 5월호, 16페이지.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2페이지.

중재자,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4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4페이지.

친구가 친구에게,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6년 4월호, 10페이지.

예언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리그랜드 리차드,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3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2페이지.

한 줄기 밝은 빛,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1페이지.

예언자

계시: 예언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80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6페이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라, 빅터 엘 브라운, 1977년 10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7페이지.

예언자요 축복사요 가장인 리하이

마살 알 크레이그,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6년 9월호, 58페이지.

예언자의 마지막 성탄절

앨버트 엘 조벨 이세,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3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2월호, 13페이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에스 딜위스 영,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2페이지.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2페이지.

완전

완전은 우리의 목표, 윌리엄 에이치 베넷,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9페이지.

완전은 우리의 목표

윌리엄, 에이치 베넷,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9페이지.

왜 모든 자매에게 상호부조회가 필요한가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73페이지.

요셉

브렌다 블룩삼,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18페이지.

호, 18페이지.

요셉 스미스—그의 다섯 가지 지도자적 자질

윌리엄 이 베넷,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26페이지.

용감했던 순간들

키이트 크리스턴슨,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20페이지.

키이트 크리스턴슨,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28페이지.

용기

따라 행하시오,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54페이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메이비드 비 헤이트,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페이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0페이지.

우리가 섬기는 우상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6월호, 2페이지.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페이지; 처치 뉴스, 1976년 9월 18호, 8페이지.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33페이지.

우리는 성약을 맺는 백성

조셉 앤더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9페이지.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35페이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로렌 시 던,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0페이지.

우리 왕국의 기록

지미 비 파커,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6년 8월호, 22페이지.

우리의 리아호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7페이지.

우리의 집을 주님께 맡기고

로버트 엘 심슨,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27페이지; 뉴 이라, 1977년 1월호, 4페이지.

우상

우리가 섬기는 우상,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6월호, 2페이지.

우정

분홍색 부활절 드레스, 도라 디 프렉크,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6년 4월호, 41페이지.

우정 증진

성도를 완전케 함, 프랭크린 디 리차드,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3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5페이지.

울리지 않는 종

헤이즐 앤 토마스,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5년 6월호, 3페이지.

워든, 블레인 알

아무 일도 안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14페이지.

워스틴, 조셉 비

제방과 흐르는 물,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7페이지.

웰즈, 로버트 이

내 생애 최고의 것,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9페이지.

웰즈, 로버트 이

침십인 제일 정원회의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8페이지.

위대한 잠재 능력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엔사인, 1977년 5월호, 49페이지.

위대한 형제애

엘 엘튼 태너,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6페이지.

위험을 무릅쓰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7년 2월호.

유화 원리를 이용하여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35페이지.

의식

위대한 잠재 능력,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9페이지.

이 길밖에 없지 않아요

조이스 비 베일리,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년 11월호, 14페이지.

이반스, 리차드 엘

젊은이란?,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8페이지; 리차드 엘 이반스 어록집, 37-40페이지.

이웃의 정을 돈독하게 하시는 예언자

게리 에반트,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9페이지; 처치 뉴스 1976년 11월 27일, 5페이지.

이제 나도 택함받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껴요

에어마 디 맥켄너,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8페이지.

“이천여 명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린 니메어,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2페이지; 앤사인, 1977년 2월호, 12페이지.

인간을 위한 사업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0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10페이지.

인간의 참된 맛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4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48페이지.

인내

비록 내가 연약하나, 닐 에이 맥스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2페이지.

인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매리온 지롭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67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70페이지. 제방과 흐르는 물, 조셉 비 워스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7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인생이라는 경기

폴 에이치 던,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31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0월호, 10페이지.

일지

가정의 밤,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9페이지; 프렌드, 1965년 8월호.

나의 선교사 일지,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23페이지; 프렌드, 1977년 6월호, 37페이지.

내가 그리던 어머니, 웬더 웨스트 배져,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0페이지.

여러분 자신의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친사가 인용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24페이지; 뉴 이라, 1975년 10월호, 4페이지.

1, 113쌍이 신전 결혼했으나 영생은?

존 케이 에드먼즈,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8페이지; 앤사인, 1976년 7월호, 69페이지.

임무, 목표, 정원회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13페이지.

입습, 캐드린 에이치

지금은 나를 따르거라,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0페이지; 앤사인, 1977년 11월호.

ス

자기 관리

완전은 우리의 목표, 윌리엄 에이치 베넷,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9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29페이지. 합당한 자기 관리,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2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84페이지.

자기 신리

내가 정한 방식대로, 매리온 지롭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2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23페이지.

복지의 원리, 본 제이 페더스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8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18페이지.

서로 사랑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6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27페이지.

자녀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3페이지; 앤사인, 1976년 3월호, 41페이지.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3페이지; 앤사인, 1976년 3월호, 41페이지.

자녀에게 경전을 가르침

제프리 알 홀랜드,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4페이지.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침

스티븐 알과 샌드라 코우비,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9페이지; 앤사인, 1976년 1월호, 58페이지.

자바의 작은 마을에서 본 신앙

케이론 에스 쿠르,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6페이지; 앤사인, 1976년 7월호, 75페이지.

자살

더 오래 일할 준비를 갖춘 젊은이, 엔 앨돈 태너, 1977년 2월호, 71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73페이지.

자선

더욱 큰 기쁨, 매리온 디 행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32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31페이지.

여리고로 가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74페이지; 앤사인, 1977년 5월호, 71페이지.

자존

가서 행하라, 엔 앨돈 태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5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26페이지.

비록 내가 연약하나, 닐 에이 맥스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2페이지.

합당한 자기 관리,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82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84페이지.

장로

수련 장로에게 드리는 말씀,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0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04페이지.

재활동

성도를 완전케 함, 프랭클린 디 리차드,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3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5페이지.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음, 고든 비 헝클리,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95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95페이지.

저마다 책임이 있느니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페이지; 앤사인, 1977년 11월호.

젊은이란?

리차드 엘 이반스,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8페이지; 이반스 인용집, 39—40페이지.

정직

보고와 목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4페이지.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 매리온 지롭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34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36페이지.

제방과 흐르는 물

조셉 비 워스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7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27페이지.

제2 보혜사

그리스도의 빛, 매리온 지롭니,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2페이지; 앤사인, 1977년 5월호, 43페이지.

조별, 앨버트 엘

예언자의 마지막 성탄절,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3페이지; 뉴 이라 1975년 12월호, 13페이지.

조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라이만 디 플렛트,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3페이지; 앤사인, 1976년 10월호, 16페이지.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마야 문명

제임스 에스 팩커, 1977년 6월호, 6페이지; 앤사인, 1972년 9월호, 50페이지.

존슨, 웨리

물 위의 시장,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5년 4월호, 17페이지.

존 위클리프

한 걸음 앞으로, 낸시 엠 암스트롱,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2페이지.

존스, 제럴드 이

사우드 다코타로 이민온 한 스웨덴인과 물문경,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23페이지.

중

울리지 않는 종, 헤이즐 엘 토마스,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5년 6월호, 3페이지.

주님 안에서 죽은 자

브르스 알 맥콩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6페이지; 앤사인, 1976년 11월호, 106페이지.

주님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심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페이지; 앤사인, 1977년 5월호, 4페이지.

주님의 도구

폴 엘리크 고베즈,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35페이지.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라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83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9페이지.

주님의 보조 조직

로버트 엘 심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0페이지.

주님의 창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보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8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82페이지.

주일학교

친구를 교회 모임으로,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주일학교 교과 과정

16반 및 17반,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3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30페이지.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숨기지 못하리라, 디어더어 엠 버튼,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8페이지.

죽은 후의 삶

주님 안에서 죽은 자, 브르스 알 맥 쿡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6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6페이지.
홀륭한 죽음, 스티얼링 더블류 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6페이지.

죽음

주님 안에서 죽은 자, 브르스 알 맥 쿡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6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6페이지.
홀륭한 죽음, 스티얼링 더블류 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6페이지.

중재자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54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4페이지.

지금은 나를 따르거라

캐드린 에이치 입슨,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지도력

빛이 보입니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4페이지.

지역 대회

대회의 목적, 엔 엘돈 배너,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0페이지.

지하 정원

땅속에 사는 사람, 서리 리,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5년 11월호, 14페이지.

진복팔단

팔복에 관한 산상 수훈과 우리의 온전함, 로이든 지 테릭,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7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7페이지.

질의 응답

러셀 엠 넬슨,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3년 9월호, 23페이지.

로렌 시 던,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1페이지; 뉴 이라, 1975년 9월호.

몬트 에스 나이먼,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11페이지.

호텐스 에이치 차일드,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25페이지.

나

차일드, 호텐스 에이치

나는 감독과의 개인 접견 준비를 어떻게 하나?,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25페이지.

참된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성,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1페이지.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성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1페이지.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툼 지 로즈,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6페이지.

천사가 인용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24페이지; 뉴 이라, 1975년 10월호, 4페이지.

철주를 내려지라

비 로이드 포엘만,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21페이지; 뉴 이라, 1975년 10월호, 26페이지.

청소년

영향력있는 교사, 본 제이 케더스토운,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3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3페이지.

젊음이란?, 리차드 엘 이반스,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8페이지; 리차드 엘 이반스 인용집, 39-40페이지.

청지기 직분

주님의 보조 조직, 로버트 엘 심슨,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0페이지.

초등학교

티셔츠를 입은 교마 선교사,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81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36페이지.

친구가 친구에게

본 제이 케더스토운,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30페이지.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성도의 빛, 1977

년 11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7년 6월호, 6페이지.

친구가 친구에게,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매리온 지 톨니,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6년 4월호, 10페이지.

친구를 교회로 인도할 때

스펜서 제이 콘디,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친구를 주일학교 모임으로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침십인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에스 딜 워스 영,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2페이지.

침십인 제일 정원회의 재조직,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페이지.

침십인 제일 정원회의 재조직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페이지.

나

코우비, 샌드라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침,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월호, 58페이지.

코우비, 스티븐 알

어떻게 간증을 전할 것인가,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4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침,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월호, 58페이지.

콘디, 스펜서 제이

친구를 교회로 인도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크레이크, 마셜 알

예언자요 축복사요 가장인 리하이,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6년 9월호, 58페이지.

크리스텐슨, 키이트

용감했던 순간들,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20페이지.

용감했던 순간들,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28페이지.

클라크, 제이 리차드

다시는 그와 같이 되지 못하리,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9페이지.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를 통하여 필요

한 사랑을 충족시킴,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89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85페이지.

킵블, 스펜서 더블류

감사하는 마음,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페이지; 고용인 성탄절 영적 모임, 1976년.

경전을 상고함,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1페이지.

계시: 예언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80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6페이지.

대관장단의 성탄절 추억,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0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2페이지.

보고와 목표,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페이지.

상호부조회의 축복과 잠재력,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3월호, 2페이지.

서로 사랑하라,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6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7페이지.

영원한 일.....위험을 무릅쓰리요,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우리가 섬기는 우상,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6월호, 2페이지.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페이지; 처치 뉴스, 1976년 9월 18일.

우리의 리아하나,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7페이지.

위대한 잠재력,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9페이지.

이웃의 정을 돈독하게 하시는 예언자, 게리 에반트,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9페이지; 처치 뉴스, 1976년 11월 27일, 5페이지.

인간을 위한 사업,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0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0페이지.

저마다 책임이 있느니라, 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주님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심,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페이지.

친사가 인용할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24페이지; 뉴이라, 1975년 10월호, 4페이지.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재조직,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페이지.

ㄷ

대너, 엔 엘든

가서 행하라,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6페이지.

구세주의 방법대로 인도함,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1페이지.

고결한 성품,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4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14페이지.

교회 부부 역원 지지,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엔사인, 1977년 5월호, 11페이지.

대관장단의 성탄절 추억,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년 12월호, 2페이지.

대회의 목적,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80페이지.

더 오래 일할 준비를 갖춘 젊은이,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73페이지.

아직도 개척자는 필요합니다,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6년 6월호, 2페이지.

위대한 형제애,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6페이지.

터틀, 에이 디어도어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2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2페이지.

테일러, 헨리 디

경전을 연구하라,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62페이지.

토마스, 헤이즐 엠

울리지 않는 종,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5년 6월호, 3페이지.

통계 보고, 1976

프랜시스 엠 기번즈,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티셔츠를 입은 피마 선교사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36페이지.

ㄹ

파우스트, 제임즈 이

나와 구세주와의 관계,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4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58페이지.

파이안스, 제이 토마스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38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39페이지.

파커, 지미 비

우리 왕국의 기록,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6년 8월호, 22페이지.

팔복에 관한 산삼 수훈과 우리의 은전함

로이든 지 메릭,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7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7페이지.

패러모어, 제임즈 엠

수많은 증거,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2페이지.

패커, 보이드 케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29페이지.

패커, 보이드 케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성도의 빛, 1977년 12월호, 28페이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개인 역사 기록 작성,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반원을 이해함, 성도의 빛, 1977년 7월호, 35페이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수련 장로에게 드리는 말씀,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4페이지.

유화 원리를 사용하여 가르침,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36페이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중재자,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엔사인, 1977년 5월호, 54페이지.

패튼, 헬렌

펜팔을 통한 개종,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6페이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2년 4월호, 235페이지.

팩커, 제임즈 에스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마야 문명,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2년 9월호, 엔사인, 50페이지.

핑크, 루스 에이치

그들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성도의 빛, 1977년 9월호, 14페이지.

페더스토운, 본 제이

부지의 원리,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8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8페이지.

영향력있는 교사,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03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03페이지.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빛, 1977년 14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30페이지.

페리, 엘 톨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0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9페이지.

부지 사업에 있어서 스테이크 감독 회의 기능,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92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88페이지.

펜팔을 통한 개종

헬렌 패튼,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16페이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2년 4월호, 235페이지.

평온한 마음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13페이지.

포링글, 머리 티

가면을 쓴 너구리,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21페이지.

포엘만, 비 로이드

철주를 내려치라,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21페이지; 뉴 이라, 1975년 10월호, 26페이지.

프레크, 도라 디

분홍색 부활절 드레스,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6년 4월호, 41페이지.

피네가, 렉스 디

살아 계신 예언자,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6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67페이지.

피어슨, 버지니아 에이치

안식일 상자,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6년 9월호, 14페이지.

피터슨, 마크 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77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3페이지.

인간의 참된 맛,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8페이지.

피터슨, 에이치 버크

매일 사랑하는 생활,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7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8페이지.

생산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함,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1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14페이지.

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맛, 에어만 브락크,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6년 4월호, 36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맛

에어만 브락크, 1977년 4월호, 21페이지.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리그랜드 리차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엔사인, 1977년 5월호, 62페이지.

하이덴라이히, 존 에프

성경을 가르쳐 주는 문물경,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25페이지.

하틀리, 윌리엄

어느 실업가와 벙커 감독,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8페이지; 뉴 이라, 1976년 11월호, 10페이지.

한 걸음 앞으로

낸시 앤 암스트롱,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6년 10월호, 2페이지.

한 번의 노력

폴 에이치 먼, 성도의 벗, 1977년 3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6년 7월호, 69페이지.

한 사람으로 온 나라 백성이

에밀리오 오 바젤리,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25페이지.

한 줄기 밝은 빛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5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1페이지.

할아버지의 선물

브르스 라이만 비숍,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7년 1월호.

함께 나눔

내가 정한 방식대로,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2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23페이지.

분홍색 부활절 드레스, 도라 디 프렉,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6년 4월호, 41페이지.

합당한 자기 관리

마빈 제이 애쉬튼,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82페이지; 엔사인, 1975년 11월호, 84페이지.

행동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0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59페이지.

행동에 옮기라는 권고

바바라 비스미스,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9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90페이지.

행스, 매리온 디

더욱 큰 기쁨,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3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31페이지.

헌납

완전은 우리의 목표, 윌리엄 에이치 배넷,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9페이지.

헌터, 하워드 더블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6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17페이지.

성찬에 대한 명상,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24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4페이지.

헤이트, 데이비드 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페이지.

헤일즈, 로버트 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2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4페이지.

협동 교단

교회 부지 사업의 목적,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엔사인, 1977년 5월호, 92페이지.

형제애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77페이지.

위대한 형제애, 앤 엘돈 태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4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46페이지.

호우프만 할머니

엘리자베스 라인,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17페이지.

홀랜드, 제프리 알

자녀에게 경전을 가르침,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4페이지.

황금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마크 이 피터슨,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77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73페이지.

회개

방편을 주셨습니다, 로버트 더 헤일즈,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24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4페이지.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음, 고든 비 힝클리,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9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5페이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로버트 엘 심슨,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27페이지; 뉴 이라, 1977년 1월호, 4페이지.

친구가 친구에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7년 6월호, 6페이지.

회복

선전자 요셉, 고든 비 힝클리,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4페이지.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성, 멜버트 엘 스테이플러,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21페이지.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리그랜드 리차즈,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3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2페이지.

회원 선교사

레이드 로버츠,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프랭클린 디 리차즈,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4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훌륭한 죽음

스터얼링 더블류 실,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42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46페이지.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프랭클린 디 리차즈, 성도의 벗, 1977년 11월호, 4페이지; 엔사인, 1977년 11월호.

힐튼, 호프 에이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1부;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6년 9월호, 32페이지.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2부;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34페이지.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3부;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2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57페이지.

힐트, 린 엠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1부; 성도의 벗, 1977년 7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6년 9월호, 32페이지.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2부;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34페이지.

리하이의 발자취를 따라, 제3부;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2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0월호, 57페이지.

힐

제방과 흐르는 물, 조셉 비 워스린,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27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27페이지.

힘클리, 고든 비

모든 것을 얻을 뿐 잃는 것은 없음,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95페이지; 엔사인, 1976년 11월호, 95페이지.

선견자 요셉,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65페이지; 엔사인, 1977년 5월호, 64페이지.

알림

성도의 벗이 새로운 체제로 발간됨

1978년 1월부터 성도의 벗이 아래와 같이 발간됩니다.

아 래

- ① 크기 : 20.4센티×14.5센티(현 성도의 벗 크기의 절반 정도로 축소됨)
- ② 페이지 수 : 48페이지 (대회 특집호 196페이지)
- ③ 새로운 체제의 이점
 - ㄱ) 책이 작아지므로 우편료가 절감되고 휴대하거나 보관하는 데 편리하며, 종이가 25퍼센트나 절약된다.
 - ㄴ) 페이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충실하고 다양한 내용을 실게 된다.
 - ㄷ) 생산비가 절감되므로 인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독자 제현은 성도의 벗을 새로운 체제로 축소, 발간하는 의도를 심분 이해하셔서 계속 구독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도의 벗의 발전을 위한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977년 12월 성도의 벗 드림

